Life p/14
안티에이징 화장품 '불티'

metro®
메트로 2015년 1월 20일 화요일 제3139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8
에디킴, 19금 이야기까지…

정용진 골목 '신세계'

대한항공 조현아 1차공판 강제회항 공방 p/9, 23

호프집에 주류백화점까지 "대기업이 동네상권 침탈"

'홀로서기'에 나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다시 골목상권에까지 진출하며 눈총을 받고 있다.

신세계그룹 주류 계열사인 신세계L&B는 다음달 12일 경기도 파주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웃렛에 30평 규모의 주류 백화점 '와인앤모어' 1호점을 연다. 3월에는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에 2호점도 열 예정이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근처에 400평 규모의 수제맥주 전문점 '데블스도어'도 열었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해 '맥아 및 맥주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며 공식적으로 맥주사업에 발을 들였다. 신세계의 주류사업은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챙기고 있다.

정 부회장은 또 지난해 로열티 없는 착한 편의점 '위드미'도 출범했다.

수제 맥주집과 주류 백화점에서 버는 돈은 정 부회장에겐 큰 돈이 아니나 와인바들에는 생사가 걸린 돈이다. '위드미'도 기존 편의점과는 다른 '상생'을 내세우긴 했지만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을 잠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동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의 재벌가 '빵집' 논란이 가라앉자 마자 정 부회장이 '술 장사는 안한다'는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경영철학과도 배치되는 주류 사업에까지 열을 올리며 골목상권을 넘보는 데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2면에 계속>

/염지은기자 senajy7@metroseoul.co.kr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한반도 종단열차' 등 추진

전문가들 "전시성 이벤트는 그만둬야"

정부는 올해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나진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종단열차' 시험 운행을 추진한다.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해 남북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삼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준비' 부문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사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은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통일을 준비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통일준비 인력을 양성하고 부처별 전담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반도 종단열차' 시험 운행은 2개 노선 운행이 구상되고 있다.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이용해 신의주나 나진으로 향하는 노선이다.

'남북겨레문화원'은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 등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협력 성과물을 전시하고 민간단체의 사회문화 교류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이 목적이다.

통일부는 이밖에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가칭)' 구성을 북측에 제안한다.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열리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도 협의할 계획이다.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통한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이미 나온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 평화공원 조성도 계속 추진한다.

외교부는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통일의 안보적 기반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남북교류와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일준비의 제도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방적 정책에 머물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통합에 기여할 전략적 협력의 모색 없이 전시성 이벤트 사업에만 매달리는 관행에서는 그만 탈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신세계 L&B 주류사업 본격화

중소기업 업종 침해 여부 논란

<1면에서 계속>

신세계그룹은 최근 경기 침체와 출점 규제, 중소기업과의 상생 여론 등의 여파로 성장 정체에 직면해 있다.

정 부회장은 이마트 이후 그룹의 새 먹거리 발굴을 위해 하남 외 수도권 10곳에 교외형 복합 쇼핑몰 건설을 계획하고 부지 선정과 투자 활동을 직접 챙기고 있다. 동남아 진출 강화, SSG닷컴 등 온라인 시장 확대, 홈쇼핑 등 유통 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 발굴에 골몰하고 있다.

18일 신세계그룹은 최근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2015년 그룹 임원 워크숍을 열고, 올해 전체 투자규모를 사상 최대 규모인 3조35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후견인 역할을 했던 구학서 고문이 지난해 12월 회장직을 반납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정 부회장이 이번 투자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 내기에 나선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삼성에서 완전 분리된 1997년 당시 매출이 2조원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7조430억원(공정위 자료), 계열사 29개로 재계 13위에 올라 있다.

이명희-구학서 체제가 이끌었던 신세계의 부흥기를 정용진 부회장이 이어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염지은기자 senajy7@metroseoul.co.kr

국방부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조국방' 국방부가 19일 '창조국방'을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신기술이 융합된 신무기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사진은 2014년 11월 대전에서 열린 제7회 M&S(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학술대회를 찾은 장병들이 행사장에 전시된 증강현실에 기반을 둔 사격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실시

국방부는 최근 남북관계의 중대 변수로 떠오른 키 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FE)을 계획대로 3월 초에 실시하기로 했다. 북한은 핵실험 중단까지 제안하며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해 왔다.

국방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2015년 국방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한미연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한미연합체제 강화를 업무보고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했고, 한미연합훈련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은 튼튼한 국방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여건"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요구를 국방부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국방부의 판단에는 북한의 주장이 고도의 심리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추가 핵실험을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간 훈련과 관련해 여러 주장을 했지만 새로운 논리"라며 "군사적으로 봤을 땐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원인이 한미연합훈련에 있는 것처럼 오도할 의도가 있다고 보며 남북관계 책임도 연합훈련에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도 "KR·FE 연습은 3월 초부터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며 "참가 규모 면에서도 현재는 계획대로 실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KR 연습에는 외국 주둔 병력 1100여 명을 포함한 주한미군 5200여 명이 참여했고, FE 연습에는 한국군 사단급 이상 부대 등이 참가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신무기로 북핵·WMD 무력화"

국방부가 레이저빔·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탄·전자기파(EMP)탄 등 신무기를 2020년대 초반까지 개발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무력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역비대칭 전력'으로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군사정찰위성과 '한국형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도 전략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형 국방력' 건설 방안을 밝혔다.

레이저빔은 30㎾급의 전기로도 작동할 수 있어 발사 비용이 몇천원에 불과하다. 미국은 항공기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공중레이저발사기(ABL)도 무기화했다.

HPM탄은 일명 'e-폭탄'으로 불린다. 20억W의 전력을 분출해 반경 300여m 이내의 모든 전자제품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 무기체계로 평가된다.

고출력 EMP를 발생시키는 EMP탄은 반경 1~5㎞ 이내의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실제 파괴하는 무기이다.

모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신무기체계로 '창조형 국방력'의 핵심이다.

군사정찰위성은 올해 10월까지 개발 계약을 체결해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의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탐색개발은 올해 10월 시작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가용 국방자원의 제한과 다변화된 위협 등을 고려할 때 '따라잡기식' 접근에서 탈피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방발전이 요구된다"며 "(전쟁사를 보면) 전쟁의 승리는 기술적 우위나 전략·전술적 우위를 점한 쪽에서 쟁취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창조형 국방력' 개념과 방향은 2~3개월 만에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방전문가는 "선진국처럼 미래전을 대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공감대 형성도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13월의 세금폭탄'… 정치권 갈팡질팡

與 "공동 책임" vs 野 "재벌 감세 탓"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변했다는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신속한 수습책은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19일에도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이 공제율을 5%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은 오히려 여유있는 중산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곳은 많아 정초부터 '유리봉급' 생활자의 웃음이 사라졌다"며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지갑을 털어 재벌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 결과"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우리 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고 했으나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내는 데 실패했다"며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자성론을 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수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작년 말 야당이 소득세 증세를 주장할 때 작년 연말정산과 금년 5월 소득세신고시부터 중상층 이상의 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테니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우리 당은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이유에 대해서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한 것"이라며 "'많이 걷고 많이 환급 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받는 환급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은 축소되지 않고 중산층(총급여 3450만~5000만원)은 개인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여부는 복지 혜택과 동시에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야당이 말하는 어떤 공제율을 적용하더라도 세수가 늘어나는 계층은 중상층(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라며 "연말정산 공제를 늘리자는 야당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되는 중상층의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3년 개정된 세법 적용을 받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달라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세액공제 환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8761억원 정도 줄었다. 세금 환급으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던 직장인 가운데 상당수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동상이몽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선거에 나선 문재인(왼쪽) 후보와 박지원 후보가 19일 전북 김제시 최규성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당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중반으로 접어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 레이스가 정책이나 비전 대결은 실종된 채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연합뉴스

"중산층에 기회 제공" "중소기업 부담 늘 것"

美 민주-공화 '오바마 증세' 놓고 설전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의 새해 국정 연설을 놓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집권 2기 후반기에 들어선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증세' 카드를 앞세워 기선잡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AP·AFP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0일로 예정된 연설에서 공화당 지지층인 부유층과 대형 금융회사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여 중산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는 등 세제 개혁을 통해 10년간 3200억 달러(약 345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샌더 레빈(미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세제 개혁안은 정확히 미국이 가야 할 방향"이라며 "바로 중산층

가족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댄 파이퍼 백악관 선임고문도 CBS 방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은 경기 회복을 더 부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은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투자자의 세금 부담만 늘릴 것"이라며 "진보 성향 측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의회와 함께 망가진 세제를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권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도 "일부 국민을 잘살게 하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국명기자 kmlee@

김무성 vs 서청원, 계파갈등 어디로?

徐 "김 대표가 잘해야"… 휴전 모드 속 신경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간 '비박(비박근혜) 대 친박(친박근혜)' 계파갈등이 휴전 모드 속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친박좌장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9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당·청 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 "(김 대표가) 열심히 교감도 하고 정부의 정책을 성사시키는 데 노력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표가 잘해야겠죠"라고 말했다.

김 대표에게 '언중유골'을 다시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 최고위원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배후설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행정관이든 비서관이든 열심히 (대통령을) 모시는 일을 해야지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을 가서 전달하고…어린이 장난 같은 이야기"라고 했다.

배후설을 제기한 것으로 지목된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은 물론, 이를 김 대표에게 전한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특보단장 후보로 언론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하는 일도 벅차다. 제가 한번도 그런 의사를 표시했거나 한 일이 없다"며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나오는 데 괴롭다"고 말했다.

당내 친박계와 김 대표가 갈등 양상을 빚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표가 생각하고 저희와 의논을 하겠죠"라고 했다.

박 명예이사장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을 놓고 촉발된 여당 내 계파 갈등은 당분간 '휴전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새해 민생 탐방을 이어가고 있고 서 최고위원은 한·일, 한·중 관계의 보폭을 넓히는 등 양측 모두 '바깥행보'에 치중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두 인사가 외부 일정을 마무리한 뒤 상황에 따라서는 노골적 대결 국면이 재연될 가능성은 살아 있다. 계파 갈등이 완전히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어서 긴장감은 여전하다. /조현정기자

"4·3 추념식에 대통령 참석 건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 다 같이 갈등을 없애서 (4·3 국가추념일에) 대통령이 오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19일 제주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앞서 4·3 평화공원을 방문,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에게 4·3 추념식 참석을 적극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해에)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것은 아주 중요한 잘 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4·3사건 희생자 재심의 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상생과 화해의 정신으로 역사의 아픔을 다 보듬고 가야 한다"며 "제주도민들의 정서에 맞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원희룡 제주지사와 김을동 최고위원, 이군현 사무총장 등과 함께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고 적었다. /조현정기자

‘양의 탈’ 쓴 일본, 아프리카 노리나

지부티에 첫 해외기지 검토… ‘평화국가 일본’ 홍보 나서

‘군사대국화’를 향한 일본 아베 정권의 폭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이다. 역사에 대한 반성을 뒤로 한 채 테러 방지 등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핑계’를 앞세워 자위대 해외주둔까지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해적대책 공조 차원에서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에 마련한 자위대 거점을 사실상 ‘해외기지’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중동에서 일본인 납치 등 유사상황이 발생할 경우 초계기를 파견하는 것은 물론 테러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지부티 거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일본 자위대가 해외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7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이 결정된 이후 처음이다.

일본은 2011년 소말리아 근해 해적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자위대 최초의 해외 거점을 지부티에 만들었다. 지부티 국제공항에 인접한 12㏊ 부지를 지부티 정부로부터 임차해 사령부 청사·관사, P3C초계기 3대 분의 계류장과 1대 분의 격납고 등을 건설했다.

방위성은 올해 진행할 자위대법 등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지부티 거점을 다목적화할 방침이다. 거점의 장기간 사용을 전제로 2016년도 예산안에 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위성 간부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입각하면 자위대가 해외의 유일한 거점을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홀로코스트서 연설 계획

중동 국가 순방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집단 자위권 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이곳에서 인권 등을 주제로 연설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설에는 ‘평화국가 일본’을 홍보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이집트 카이로 연설에서 “일본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바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는 규탄하지만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등 과거사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중 인식’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 회의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앉아 있다. /AP 연합뉴스

대학생들 수업 중 ‘알몸 시위’

metro Brazil

대학생들의 ‘알몸 시위’가 화제다.

15일(현지시간) 메트로 리우데 자네이루에 따르면 웃통을 벗고 수업을 듣는 리우 데 자네이루 주립대학 공학부 학생들의 사진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40도를 넘나들 정도의 살인적인 더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자 이같은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롤리니 고메스(23·전기 공학부)는 “대학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다”며 “대부분의 강의실에서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메트로 브라질·정리=정자연 인턴기자

‘킹 목사의 날’에 평화행진 미국 흑인해방운동 지도자인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업적을 기리는 ‘마틴 루서 킹 데이’를 하루 앞둔 18일(현지시간)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등이 1965년의 평화행진이 시작됐던 앨라배마주 셀마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AP 뉴시스

뉴욕 1000억원대 아파트 등장

‘뉴욕에서 가장 기대되는 아파트’.

미국 뉴욕의 중심 맨해튼에서 1억 달러를 넘는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18일 뉴욕 시 금융부에 따르면 맨해튼 미드타운 157번지 57번가에 건축된 고층아파트 ‘원 57’(One 57)의 펜트하우스가 지난해 말 1억50만 달러(약 1083억원)에 팔렸다. 원 57은 306m 높이로 뉴욕에서 6번째로 높은 빌딩이다.

이는 지금까지 맨해튼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종전 최고 매매가격(8800만 달러)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펜트하우스 매입자는 ‘P 89-90 LLC’로만 기록돼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펜트하우스는 기존 아파트의 최고층인 90층과 89층을 서로 터서 만들었다. 1020 평방 미터의 널찍한 공간에 침실 6개가 구성됐다. 탁 트인 창문을 통해 맨해튼의 명소인 센트럴파크도 내려다 볼 수 있다.

맨해튼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1억3000만 달러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장윤희기자

‘원 57’ 펜트하우스 내부 모습. 창밖 너머로 맨해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원 57 홈페이지

“애플에 연연하지 않는다”

인텔 CEO ‘공급 변경 루머’ 강경 대응

“거래처가 애플이든 아니든 걱정하지 않는다.”

애플이 인텔 제품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루머에 대해 인텔 CEO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19일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 중으로 맥 제품 생산에 필요한 칩을 인텔이 아닌 ARM으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이는 ARM이 인텔보다 저렴하면서 애플이 원하는 디자인 칩 생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애플과 인텔의 불화설은 2012년부터 불거졌지만 최근 퇴직한 애플 임원진이 “애플이 거래처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증언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에 대해 인텔 CEO 브라이언 크르자니치(사진)가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애플과의 거래 여부는 유동적이지만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크르자니치는 “나도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인텔과 애플의 관계는 여전히 돈독하다”면서 “다른 기업처럼 애플도 언제든지 경제적 또는 기술적 이유로 부품 공급처를 바꿀 수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애플이든 레노버 또는 델이든 인텔은 최상의 제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고객사와 상관없이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임원 회의를 연다”며 “인텔은 앞으로도 성능, 가격, 신뢰성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보일 것”이라고 ARM이 자사의 경쟁사가 될 수 없음을 에둘러 말했다.

한편 현재 ARM의 기술력은 인텔보다 떨어지지만 점차 그 간격을 좁혀가는 추세다. 업계 전문가들은 “인텔 칩이 ARM 칩 성능에 역전되지 않는다면 더이상의 루머도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윤희기자 unique@

하나·외환銀 합병 예비인가 승인 신청

외환 노조, 철회 촉구 108배 투쟁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하나금융의 이사 전원이 서명한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접수된 서류에는 예비인가 신청서뿐만 아니라 합병 목적과 사유, 재무상태 입증 자료부터 주주구성과 경영지배구조 계획, 앞으로의 사업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28일 정례회의에서 통합 예비인가 신청을 인가할 전망이다. 보통 예비인가 승인 여부는 신청서 접수 뒤 법적 요건을 따져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하지만 금융위가 지난 2012년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통합과 관련한 제반 서류를 수차례 검토해온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볼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통합 예비인가를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보다 엄격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의 통합을 진행할 시점"이라고 밝힌만큼 노사 합의 없이 통합승인신청서를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나금융이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에 접수한 가운데 외환 노동조합 집행부들이 철회 촉구를 위한 108배를 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 제공

이후 하나금융은 29일 합병결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통합 사명 등을 정하고, 2월 중 합병 본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낼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은행이 추진하는 예정 합병기일이 3월 1일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조와의 협상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앞서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60일간 본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며 사측과 매주 세 차례 이상 만나 대화를 진행하는 중이다.

반면 하나금융은 이달 안에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하나금융은 조기 통합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외환 노조와의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 측은 "금융위가 겉으로는 대화를 요구하는 척하면서 졸속협상 강요를 통한 하나지주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하는 동시에 금융위원장 면담 요청과 금융위 앞 집회 등을 통해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 노조 집행부 10여명은 이날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만나 예비인가 반대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하지만 금융위 정문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면담이 무산되자 정문 앞에서 합병 예비인가 강행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108배를 진행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market index <19일>

코스피 1902.62 (+14.49)

코스닥 577.94 (+0.53)

금리(국고채 3년) 2.04 (+0.03)

환율(원·달러) 1078.60 (+1.10)

하나은행 '골드바' 전 영업점 확대 판매

하나은행은 19일 일부 PB영업점에서만 판매하던 골드바 매매대행 업무를 전 영업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골드바는 1kg, 100g, 10g 등 3가지로 전국의 모든 하나은행 창구에서 골드바를 주문한 고객은 최대 4영업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다.

이는 런던금시장협회(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의 인수도적격금 생산업체로 등록된 엘에스니꼬동제련㈜에서 생산한 것으로 하나은행은 ㈜한국금거래소쓰리엠과 제휴를 통해 매매대행 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 하나은행에서 구입한 골드바에 한해 품질보증서가 첨부되고 중량과 외형이 변하지 않는 경우 재매입도 가능하다.

한편 하나은행은 골드바 판매 전 영업점 확대를 기념해 다음달 27일까지 골드바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1kg 구매당 1g의 황금열쇠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백아란기자

국세청, 과세자료 납세자에 사전 제공

앞으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가 지난해보다 줄어든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 조직도 정규조직으로 개편해 세원 확대에 나선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 본·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관서장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우선 국가재정수요를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성실납세 유도를 올해 국세 행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과세자료를 사전에 납세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납세 유형에 대해 국세청이 확보한 과세정보를 사전에 전달해 납세자들이 실수나 고의적인 누락 없이 납세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까지 3년째 세수 결손이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에서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세수를 확대하고, 탈세 의심자에 대한 사후검증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각종 과세 인프라 자료를 분석하고 매입·매출 등과 관련된 외부기관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를 갖췄다.

국세청은 최근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 과정에서 신고대상자 596만명 가운데 탈루 가능성 등이 있는 45만여명에게 매출누락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전 과제자료를 보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상속세 등 주요 국세 납부 시에도 이같이 사전 과세자료를 제공해 성실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하경제의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임시조직인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 TF'는 정규 조직화했다.

또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과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지기자 minji@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우리銀 '파이시티' 신탁상품 피해자 보상

투자액 최대 80% 회수

서울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투자자들이 투자액의 최대 80%를 돌려받게 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파이시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자리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이 표류하면서 2010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앞서 대한투자신탁운용은 지난 2007년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펀드(현 하나UBS클래스원 특별자산투자신탁)를 만들었고, 당시 우리은행은 이 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1459명에게 1900억원어치 판매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특정 주식이나 회사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해 달라고 맡기는 금융상품으로,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감원은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벌였고 부실판매 정황을 적발해 지난 9월 우리은행에 기관주의를, 이순우 전 행장에게는 경징계를 내렸다.

신탁상품 판매 시 상품안내장에 '연 7.9% 확정수준' 등과 같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예정수익률을 부당하게 제시했고, '원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다' 등의 현혹적인 표현을 썼다는 이유였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도 낙관적인 수익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투자위험성은 단 두 줄만 언급하는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했고, 신탁계약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했다는 점을 들어 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원금의 30~4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다.

이에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사업 투자 고객의 피해액을 배상키로 했다.

이번 조정 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은 은행의 배상액 40%, 파이시티 부지매각에 따른 회수금액 30%, 기존 투자 회수금액 등을 모두 합치면 투자금액의 최대 80%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배상 예상 총액은 371억원으로 우리은행은 다음달 5일까지 이의신청자로부터 조정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수렴하고, 의사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백아란기자

보험업계 빅데이터 도입 본격화

보험개발원, 시스템 개발 착수키로

국내 보험업계가 빅데이터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카드사 정보유출로 금융사 계열사 간 고객 데이터베이스(DB) 공유가 금지되는 등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지난 15일 여의도 아일렉스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부터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빅데이터란 기존 DB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분석해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시장 분석·컨설팅 기관인 IDC가 발간한 '전세계 빅데이터 기술과 서비스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10년 32억 달러에서 연평균 40%가량 성장해 올해는 169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험사의 빅데이터 도입은 이미 선진국에서 진행 중이다.

2010년 영국 자동차보험시장에 뛰어든 인슈어더박스는 운전자의 다양한 운전습관을 분석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UBI(User Based Insurance) 보험을 도입했다. UBI는 자동차 운행정보를 전달·기록하는 차량 진단 시스템(OBD)를 활용해 안전 운행을 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대신 급제동이나 급가속 등을 자주하면 보험료를 올려 받는 방식이다.

이 보험이 현지에서 성공하면서 영국은 지난 2009년 1만2000건에 불과했던 UBI 가입건수가 2012년 상반기에만 18만건으로 급증했다. 영국은 오는 2020년까지 UBI보험이 전체 자보시장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IG의 경우 지난 2012년 1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과학팀을 출범시켜 전사적인 핵심전략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현업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각 사업부문에 적용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도 최근 빅데이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삼성화재는 보험사기 고위험군 분석체계를 도입하고 사고 위험도를 점수로 측정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험사기방지 체계를 분석해 전체 보험사기의 25%를 잡아내 보험료 인하에 기여하고 있다.

라이나생명도 지난해 8월 SK텔레콤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전력적 제휴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나섰다.

정부도 지난 8일 좋은 운전 습관을 가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료를 덜 내는 '운전습관 연계보험(UBI)' 판매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KT와 보험개발원이 UBI 상품 개발을 완료하면 내년부터 해당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융지지그룹 계열사 간 고객정보 범위를 제한키로 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객정보 공유 시 고객정보 원장(元帳) 제공이 금지되고 암호화 후 제공·이용해야 한다. 고객정보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이용해야 하고 정보이용 후 즉시 파기토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빅데이터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되야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보험사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금감원, '실손의보 길라잡이' 발간

금융감독원은 19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길라잡이 발간은 최근 의료비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는 반면,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지 않고 보험금 청구절차 등을 몰라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배포하게 됐다.

이 길라잡이는 1월 내에 소형책자로 약 8000부를 발간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와 각 보험사 영업창구 등에 비치될 예정이다. 이 내용은 또 금감원,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공시자료실에 게시된다.

길라잡이 주요 내용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 보험료 갱신 등 핵심정보 ▲실제 민원사례 중심의 주요 질의 응답(Q&A)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그림·표 등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실손의료보험 10가지 유의사항도 배포했다.

이 유의사항에는 가입 전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과 약관상 보상 사항 점검, 고령자 가입 가능여부 등이 수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모집 시 가입자 안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보험사에 원고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해당 길라잡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PCA생명,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 PCA생명은 18일부터 일주일간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에서 진행하는 그룹 프루덴스 재단의 봉사활동 '사랑의 집짓기'에 소속설계사 3명을 자원봉사자로 파견한다고 19일 밝혔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PCA 아시아본부의 전체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PCA생명 제공

더케이손보, 고객중심 상품·브랜드 가치 제고 추진 더케이손해보험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2015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핵심고객 증대와 고객중심의 상품·브랜드 가치 제고를 올해 목표로 설정했다. 이날 임직원 70여명이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케이손해보험 제공

한화생명, '2015년 경영전략회의' 개최

베트남·중국 등 해외 사업역량 강화

한화생명은 16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용인 소재 연수원에서 '2015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3대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연배 부회장, 차남규 사장을 비롯해 임원, 지역본부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3대 중장기 전략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역량 구축 ▲지속 성장을 위한 비용 경쟁력 확보 ▲글로벌 시장 입지 강화 등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영업부문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건강·연금, VIP 고객층 등 미래 성장 시장 선점을 추진키로 했다. 또 디지털 시대를 맞아 모바일 청약 확산과 디지털 기반의 고객접점 업무 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해외 투자 확대 등 자산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금리 예측력 강화해 적시 대응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동시에 비용 효율화, 가치 기반 경영관리체계 구축 등 비용 절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글로벌 시장 입지 강화를 위해서는 베트남 법인의 전국 영업망을 강화해 2017년 흑자 전환 달성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중국 법인은 저장성을 기반으로 상하이, 장쑤성 등 신규시장에 진출하고, 인도네시아는 방카슈랑스 등 판매채널 다변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진출도 준비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성과 우수 영업관리자에 대한 승진 폭을 확대한다. 지점장의 부장급 승진과 지역단장의 상무보 선임이 가능하게 했다. 직무 아카데미도 개설해 직무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해외진출을 대비한 글로벌 인력 선발과 직무별 해외연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연배 한화생명 부회장은 "새로운 한화생명은 고객이 평생 함께 하고 싶은 회사, 주주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 임직원이 자랑하고 싶은 회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를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전 사업영역에 걸쳐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강도 높은 혁신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에게 보내는

천만의 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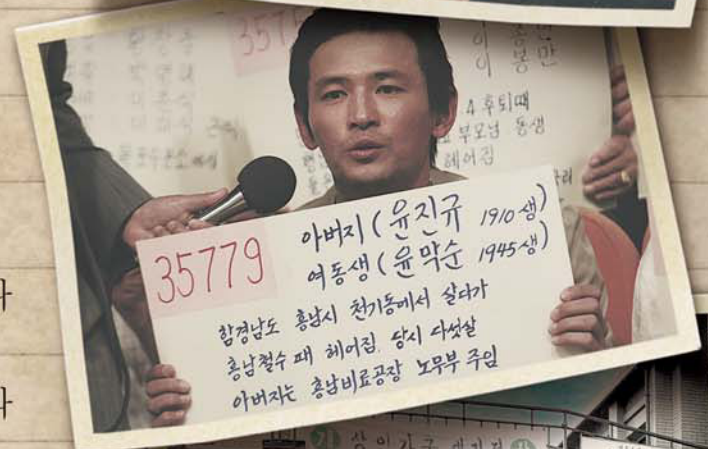
가족의 꿈이 당신의 꿈이라 하셨습니다
가족의 웃음이 당신의 기쁨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전부 가족에게 내어주고도
박수 한 번 바란 적이 없으신 아버지
영화 〈국제시장〉에 보내준 천만 관객의 박수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당신들의 것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이 하나의 영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에 가슴이 뜨거워 집니다

헌신과 사랑으로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세상 모든 아버지들과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울고 웃었던 천만 관객분들에게
감독, 배우, 스텝 및 제작진 모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화로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CJ 엔터테인먼트

국제시장

황정민 김윤진 오달수 정진영 장영남 라미란 김슬기 감독 윤제균

제작 (주)JK필름 공동제작 CJ엔터테인먼트 제공/배급 CJ엔터테인먼트 12세이상 관람가

"급락 유가 반등할까?"

원유 관련 금융 신상품 속속 등장

최근 유가가 급락하면서 원유가격의 변동을 노린 '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 신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 달새 유가가 추가 하락하면서 바닥에 근접했다는 인식에 투자심리가 살아났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유가와 연계된 미국 ETF(United States Oil Fund)를 통해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에 투자하는 '신한명품 분할매수형 ETF랩 3.0(원유)'를 선보였다.

이 상품은 WTI의 최근 5년 평균가격의 70% 수준인 65 달러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75 달러선이던 WTI 가격이 연초 40 달러 중후반까지 내려오면서 한 달새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50 달러선이 깨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다"며 "보통 분할매수 ETF들은 5~10%에 도달하면 자동 매도로 전환하는데 이번 원유 관련 ETF랩은 10% 안팎에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DB대우증권은 투자자의 유가 전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KDB대우 원유분할매수 랩'을 2종으로 내놨다.

이 중에서 지난 8일 출시된 랩 상품은 WTI 원유 선물가격이 50달러 이상이면 전체 자산의 50%를 'TIGER 원유선물 ETF'에 투자하고 50 달러에서 5달러씩 하락할 때마다 20% 추가 매수하는 구조다.

이달 12일 선보인 랩 상품은 WTI 원유 선물가격이 45 달러 이상이면 50%를 ETF에 투자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2.5 달러 단위로 하락할 때마다 10%씩 추가 매수한다.

유가 추가 하락에 무게를 싣는 투자자에게는 두 번째 상품이 첫 상품에 비해 적합하다.

해외 투자자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유가 반등을 노린 매수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

최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증시에서 원유 관련 상장지수상품(ETP)에 유입된 자금은 17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4분기에만 에너지 관련 ETF에 총 24억7000만 달러가 들어오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을 갈아치웠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한다.

월가 투자은행들은 올해 유가 전망치를 잇따라 40 달러 중후반에서 50 달러 초반 수준까지 하향조정하면서 공급과잉 문제를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원유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면서 원유 선물가격이 현물보다 높거나 결제월이 멀수록 선물가격이 높아지는 콘탱고(contango) 현상이 올 한해 내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콘탱고는 향후 원유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보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 같은 수급 상황에서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런던 소재 BNP파리바의 해리 칠링기리언 원자재 스트래티지스트는 "현재 원유에 투자하기에 특히 어려운 시점"이라며 "원유 공급이 올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콘탱고가 계속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동부증권, 백화점 상품권 지급

'두드림 이벤트' 실시

동부증권은 추천상품 가입 고객과 주식이관 고객을 대상으로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는 '두드림이벤트'를 오는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3000만원 이상 추천 상품에 가입하거나 타사에서 주식을 옮겨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한다.

추천상품은 전단채와 국채를 제외한 신용등급 A등급 이상의 채권이나 지수형 ELS 등 파생결합증권, 주식형·혼합형 펀드 등이다.

타사에 보유 중인 주식이나 타사 계좌의 펀드를 이관하는 고객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사은품을 지급한다.

지난 1일 이후 동부증권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 중 입금금액과 매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사은 혜택을 적용한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최근 기준 금리가 인하되어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나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리+α'를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부합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이번 행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베어마켓, 6개월 수익률 4.7%

코스피 크게 앞서

최근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베어마켓(약세장) 펀드'의 수익률이 올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약세장일 때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국내 베어마켓 펀드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6개월 수익률이 4.68%를 기록, 같은 기간 코스피200 지수의 -4.29%를 크게 앞질렀다. 6개월 기준 모든 베어마켓펀드가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키움마이베어마켓 1[주식-파생]A가 수익률 4.63%로 가장 높았다. 미래에셋TIGER인버스상장지수(주식-파생), 삼성KODEX인버스상장지수[주식-파생], 한국투자KINDEX인버스상장지수[주식-파생] 등의 ETF 3개 종목이 그 뒤를 따랐다. 나머지 5개 종목은 3%대 수익률을 보였고, NH-CA 리버스인덱스[주식-파생]ClassA는 지난해 10월 17일에 설정돼 6개월 수익률에서 제외됐다.

반면 주식형과 지수형펀드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같은 기간 주식형펀드가 3.61% 하락했다. 이 가운데 일반주식형이 -3.23%, 배당주식형이 -0.13%, K200인덱스형이 -3.08%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코스피지수 연동 펀드 역시 6개월 동안 3.41% 하락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장 베어마켓 펀드의 수익률이 좋더라도 장기적인 투자 대상보다는 장세가 좋지 않을 때 단기적인 대안 정도로 여기라고 조언한다.

펀드 전문가들은 "베어마켓 펀드의 경우, 하락장에서 단기적인 투자 대안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출시된 펀드가 많지 않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종하는 지수의 등락률을 역으로 추구한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목표하는 수익률이나 세부적인 운용 전략은 달라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

/김민지기자 minji@

대신증권, 후강통에 투자하는 일임형 랩 출시 대신증권은 19일 후강통에 직접 투자하는 일임형 랩 상품인 '대신[Balance] 자오상 후강통 랩'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중국 정부정책과 트렌드에 맞으면서 저평가된 고배당주와 내수소비 우량주에 집중 투자한다. 최소가입금액은 2000만원이며 랩 수수료는 2.5%로 분기별 평균잔액에 대해 후취한다. 금액제한 없이 추가 입금할 수 있고 최소가입금액 초과 분에 대해서는 부분 출금도 가능하다. /대신증권 제공

증시 침체로 지난해 주식회전율 ↓

지난해 주식시장 회전율이 증시 부진의 여파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회전율은 198.38%로 전년보다 37.76%포인트 떨어졌다.

코스닥시장 회전율도 390.51%로 전년보다 72.71포인트% 하락했다.

주식 회전율은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이다.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주주가 빈번하게 교체됐음을 의미한다.

지난해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주식 1주당 약 2번, 코스닥시장에서는 약 3.9번 매매가 이뤄진 셈이다.

회전율이 500% 이상인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59종목, 코스닥시장 215종목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9종목, 39종목 줄었다. 회전율 100% 미만은 유가증권시장 381종목, 코스닥시장 230종목이었다.

유가증권시장 회전율 상위 종목은 키스톤글로벌(3364.86%), 신우(3036.49%), 남광토건(2862.60%) 등이었다.

코스닥시장 회전율 상위 종목은 파루(3863.74%), 제일바이오(3746.07%), 제이씨현시스템(3358.08%) 순이었다. /김민지기자

속살 드러난 대한항공 - 국토부 커넥션

검찰 "양측이 짜고 끊임없이 사건 은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가 끊임없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정황이 검찰의 수사 결과 다시 한 번 드러났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해당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대한항공과 국토부가 끊임없이 사건을 감추기 위해 위력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의자로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 국토부 조사관 등 3명이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검찰이 설명한 정황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현지시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편 1등석에 탑승해 기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발단으로 김모 승무원과 박모 사무장에게 차례로 폭언과 폭력을 사용하며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받아냈다. 이후 박 사무장이 여객기에서 내리도록 지시한 뒤 해당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사건을 보고받은 여 상무는 박 사무장의 최초 경위서를 삭제하고 "회사를 정년까지 오래 다녀야 하지 않겠느냐"며 박 사무장이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내용을 담은 시말서를 쓰도록 지시했다.

이어진 국토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는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이 조 부사장의 폭언과 폭력은 없었다거나 듣지 못했다고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종용했다.

또 박 사무장에게 "(국토부가) 정부기관은 무슨 정부기관이냐. 다 대한항공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번 일만 지나가면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출신의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수시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전하고 사건 축소를 도모했다.

이 같은 세 사람에 대해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법무법인 광장과 화우 등 피의자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적용한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조 전 부사장과 남편, 19개월 된 쌍둥이 아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입을 뗐다.

이어 "항공기항로변경과 위계 등 각 혐의에 대해 의문과 함께 문제를 제기한다"며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 김 승무원 각 3자의 기억이 다를 수 있다.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이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항로는 하늘의 길이를 의미하는 개념"이라며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이 진행된 303호는 서부지법에서 가장 큰 규모지만 오전부터 줄을 서고 기다린 기자단으로 인해 번호표를 발급하며 일반 방청객과 나눠 입장을 관리했다.

공판에는 취재진 100여명과 방청객 100여명 등 200여명이 모여 한겨울에 법정 내 찜통더위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LG전자 톤플러스 헤드셋 '핑크골드' 출시

커리어우먼·워킹맘 겨냥

LG전자가 커리어우먼과 워킹맘을 겨냥한 블루투스 헤드셋 'LG 톤플러스(HBS-900)'(사진)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한다.

LG전자는 세계적인 오디오 명품 브랜드 하만카돈과 공동 개발해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블루투스 헤드셋 'LG 톤플러스'의 '핑크골드' 색상을 1월 말 국내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핑크골드' 색상은 여성 소비자들을 겨냥한 제품이다. LG전자 측은 최근 여성들이 직장 업무, 운전, 육아 등 사회활동 범위가 점차 증가하면서 핸즈프리로 다른 일과 동시에 통화, 음악감상 등을 하길 원하고 있다. 이러한 니즈를 파악해 '핑크골드' 색상을 추가로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LG 톤플러스'는 메탈 느낌의 슬림한 넥밴드 디자인을 적용해 고급감과 착용감을 높여 웨어러블 패션아이템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가격은 16만9000원이다.

'실버' 색상은 2014년 7월, '골드' 색상은 2014년 9월에 기 출시된 바 있다. 'LG 톤플러스'는 국내에 처음 공개된 이후 북미, 아시아,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인기몰이 중이다.

허재철 LG전자 한국영업본부 한국HE마케팅FD 상무는 "이번 추가 색상 출시는 제품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여성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도 블루투스 헤드셋 신제품 출시로 관련 제품군 내 리더십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기자 ysw@

대우조선 노조가 회사에 축하난 보낸 사연은…

대우조선해양은 현시한 노조위원장이 고재호 사장에게 축하난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어려운 시장환경 속에서 수주목표를 초과달성하며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최고경영진에 감사를 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6대 노조위원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사측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올해도 어려운 조선시황과 환경에서 경쟁해야 하지만, 일감확보와 회사발전을 위해 의기투합할 사항은 당연히 노사가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총 149억 달러를 수주하며 연간목표를 달성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 위원장의 축하난 전달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필기자

삼성·LG전자 올해 스마트폰 전략은

글로벌 '박리다매' 국내 '후리소매'

삼성·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기술 경쟁으로 소비자들의 크게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제품 출고가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국내 출시되는 제품을 보면 대부분 70~90만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최고 사양을 갖춘 프리미엄 제품이 넘쳐나도 가격 부담을 갖은 소비자에게 최신 제품은 '그림의 떡'이다.

이르면 이번주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S-LTE'(사진)의 출고가는 95만7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출시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출고가는 95만7000원으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보급형으로 출시한 '갤럭시A5'의 가격은 55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갤럭시A5'의 출시를 앞두고 '갤럭시알파'가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군이 출고가를 모두 부담하면 제품을 구입할 리가 만무하다.

LG전자도 비슷한 모양세다. LG전자는 'G플렉스2'를 22일 국내 시장에 공개를 앞두고 있다. 현재 아마존에서 70만원대에 예약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출시되는 스마트폰 가격이 하드웨어 성능 차이로 해외보다 10만원 가량 높게 책정됐다는 점에서 'G플렉스2'도 소폭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LG전자의 'LG G4'도 최고 사양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의 인터넷 정보매체인 리콤부는 'G4'에 관한 정보들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가격은 500파운드(82만원)정도로 예상했다.

하지만 양사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제품 가격은 '파격' 자체다. 최근 삼성전자가 인도서 출시한 스마트폰 '삼성 Z1'은 9만원대에 불과하다. 물론 올초 국내 출시되는 스마트폰과 사양을 비교할 수 없지만 단순 가격비교시 많게는 10배 가량 차이를 보인다. 또 삼성전자가 일본과 대만에 출시한 '갤럭시J'도 갤럭시노트3와 같은 3GB 램을 탑재했으며, 퀄컴 2.3GHz 쿼드코어 프로세서와 32GB 메모리, 풀HD 디스플레이, 1300만화소 후면 카메라 등의 사양을 갖추고 있다. 사양은 70만~80만원대 갤럭시노트3 급이지만 가격은 38만5000원에 불과하다. LG전자 역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 모델로 저가형 제품인 L시리즈와 F시리즈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양성운기자

쌍용자동차 '2015 산천어축제' 후원한다

산천어축제를 찾은 참가객들이 행사장에 전시된 '티볼리'의 내외관을 살펴 보고 있다. /쌍용차 제공

신차 '티볼리' 경품 추첨 등 파트너십 협약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이유일; www.smotor.com)가 화천군과 협약을 맺고 신차 '티볼리'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대표적 겨울축제인 산천어축제 후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지난 17일 강원 화천군에서 최재연 쌍용자동차 동부지역본부장과 최문순 화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한국을 대표하는 계절 축제로 자리 잡은 '2015 산천어축제' 후원을 위한 파트너십을 약속했다.

쌍용차는 축제 기간 동안 참가객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이벤트 경품으로 '티볼리(1대)'를 제공하며, 행사장 내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015 산천어축제'는 오는 2월 1일까지 화천천을 비롯한 화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얼음낚시와 맨손잡기 등 산천어 낚시를 비롯해 다양한 참가형 프로그램이다. 전국에서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 왔으며, 지난해 참가객 규모 100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규모와 내용 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겨울축제로 꼽히고 있다.

쌍용차는 아웃도어 마케팅 브랜드 'Ssangyong Adventure: exciting RPM' 론칭 후 스노 드라이빙 스쿨과 오토캠핑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계절 특성을 살린 레저 마케팅 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김종훈기자 fun@metroseoul.co.kr

삼성중, 1월 19일 '119' 안전의 날로

삼성중공업이 1월 19일을 회사 고유의 '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안전을 상징하는 119에서 착안해 19일을 전사(全社) 안전의 날로 선포했다.

사측은 이날 모든 임직원이 안전서약서를 작성하며 무재해 달성과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전했다.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사내 방송을 통해 "임직원들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매년 1월 19일을 삼성중공업 안전의 날로 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12대 안전수칙 준수를 가장 먼저 강조했다.

12대 안전수칙은 삼성중공업이 과거 일어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 중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 6가지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항목 6가지를 선정한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2009년 조선업계 최초로 12대 안전수칙을 제정했으며, 이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 왔다고 전했다.

박 사장은 "12대 안전수칙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절대 수칙"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이를 생활화, 습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손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손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 사장은 "작업 전에 손이 끼일 수 있는 위험 부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 중에도 수시로 손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고 예방법을 설명하고 "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치공구도 개발 및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타임제 도입 이후 조선소 내 오토바이와 차량 이동은 감소한 반면, 자전거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전거 운행 시에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린타임제는 출퇴근과 점심 등 지정된 시간 외에는 조선소에서 물류 운반을 위해 지정된 차량 외에는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정필기자 roman@

푸조, 작년 글로벌 판매 163만5천대…5.4%↑

푸조 308·푸조 2008 등 판매 성장 견인

프랑스 감성과 기술이 담긴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푸조(PEUGEOT)의 한국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대표이사 송승철·www.epeugeot.co.kr)는 2014년 푸조 글로벌 판매량이 163만5000대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푸조 글로벌 판매는 유럽이 전년도(87만9000대) 대비 9.8% 증가한 96만5000대를 판매하며, 전체 글로벌 시장의 59%를 차지했다. 중국·동남아시아 시장은 전년 대비 41.6% 성장하며 39만4000대를 판매했다. 중국은 43.1% 성장한 총 38만7000대를 판매해 푸조 판매 국가 중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한국시장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판매대수 3000대를 돌파하며 2년 연속 최고 판매 실적을 경신해 푸조 글로벌 성장세에 기여했다.

푸조 2008

푸조의 글로벌 판매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모델은 '2014 유럽 올해의 차(2014 European Car of the Year)'에 선정된 New 푸조 308이다. 2013년 9월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푸조 대표 SUV 모델인 New 푸조 2008과 New 푸조 3008은 푸조만의 탁월한 기술력과 SUV 열풍에 힘입어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푸조 막심 피캇 CEO는 "푸조에게 2014년은 성공적인 한 해로 기록되었다"며 "2015년에도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New 푸조 308, New 푸조 2008, New 푸조 3008을 중심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푸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푸조 시트로엥의 PSA 그룹은 2014년 작년 대비 4.3% 증가한 총 290만대를 판매했다.

/김종훈기자

진에어, 부산~제주 25800원 특가

진에어(대표 마원)는 2월 27일 신규 취항하는 부산~제주 노선 항공권을 2만5800원(이하 편도총액 기준)부터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진에어는 해당 노선에 189석 규모의 B737-800 항공기를 투입해 김해국제공항 기준 오전 7시 5분 출발편을 시작으로 하루 4회 왕복(일 편도 8편) 운항할 예정이다.

부산~제주 노선 예매는 이날부터 진에어 홈페이지 및 모바일 등을 통해 가능하다.

취항기념 특가로 2만5800원부터 시작하며, 일반 운임은 주중 6만8800원, 주말 7만8800원이다.

/이정필기자

트럭버스용 타이어 구매 상품권 증정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가 트럭버스용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증정 이벤트'를 2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한국타이어 트럭버스 전문매장 TBX(Truck Bus Express)와 한국타이어 공식 대리점에서 트럭버스용 타이어 중 AH33, AH22, AH30, AH15(해당 규격 : 12R22.5)를 구매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행사 기간 중 타이어 2개를 구매한 고객에게 2만원 상품권을, 4개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4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번 행사 상품에는 중장거리 운행 성능에 최적화된 'AH33', 국내 지형에 최적화된 'AH30' 등 최신 고성능 상품이 포함돼 있다. 화물차운전자의 구매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벤트 대상 상품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타이어 정보센터(1577-0009)에 문의하면 된다.

/이정필기자

기자들만 아는
숨겨진 속 이야기!

같이 볼래?

용감한 NEWS

충격!

[밀착취재] 신동엽
알고보니, '헐'!

궁금하면!

특별기자회견
용감한 기자들

매주 **수요일 밤 11시** E채널

이 프로그램은 아임티캐스트 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ww.imtcast.com

KT, 미디어사업 강화…'합산규제법' 겨냥?

KT미디어허브 합병·IPTV 요금제 재정비 등 나서

과연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을 고려한 포석일까. KT가 미디어 사업 영역 강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KT미디어허브를 흡수합병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IPTV 서비스에 대한 재정비도 들어갔다. 자사 IPTV 서비스인 올레tv 상품의 요금제를 기본 2종으로 간소화하고 제공 채널을 확대한 것.

유료방송 업계에선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KT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KT가 이른 시일 내에 자사 IPTV와 위성방송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을 전면 재검토 하도록 만들려는 계획이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합산규제법은 일부 여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임시국회에서도 합산규제법안이 지나친 제재안이라며 일부 의원이 반대, 결국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간을 KT는 이른 시일 내에 가입자 유치에 전념한다는 심산이다.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수가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을 넘어서면 정치권에서도 기존 가입자를 강제 탈퇴시키기 어렵고 결국 합산규제법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IPTV 서비스와 위성방송을 합쳐 시장점유율이 30%에 육박하는 KT는 이 때문에 가입자 유치에 목매고 있는 것이다.

황창규 KT 회장도 미디어 산업을 미래 주요 먹거리로 보고 힘을 싣고 있다. 앞서 황 회장은 지난해 5월 간담회에서도 "미디어 사업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비용을 줄이고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T는 최근 KT미디어허브를 흡수합병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IPTV 요금제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같은 KT의 움직임을 놓고 관련 업계에선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KT 제공

업계는 이 같은 황 회장의 발언 때문에 3월 진행되는 KT미디어허브의 흡수합병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 출신의 황 회장은 삼성과의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KT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삼성 모바일 전문 체험 매장인 'S.zone'을 전국 주요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어 KT미디어허브와 삼성전자는 20일부터 판매되는 삼성전자 윈도8 노트북과 태블릿PC에 '올레tv 라이브' 앱을 기본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 미디어 사업 협력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요금경쟁, 결합상품 등 경쟁력을 이용해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라면서 "이 같은 KT의 행보가 순수한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면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아무래도 다음달 국회에서 재논의될 합산규제법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올레tv, 인기 뮤비 1위는 'Mr.Chu'

KT의 IPTV 서비스 올레tv는 지난해 뮤직비디오 이용횟수를 집계한 결과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Mr.Chu)'가 1위에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올레tv에 따르면 뮤직비디오 및 공연 실황 등 음악 주문형비디오(VOD) 이용 건수는 지난해 1~12월 누적 3억회를 기록했다. 영화, TV다시보기 등 전체 장르의 연간 누적 VOD 이용량(30억4000만 회) 중 10%에 해당한다. 2013년과 비교했을 때 34%나 증가한 수치다.

올레tv는 이용횟수를 기반으로 '인기 뮤직비디오 순위'도 집계했다.

'걸그룹' 부문에서는 에이핑크, 걸스데이, 씨스타의 3파전이 돋보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걸그룹 부문 1위는 에이핑크의 'Mr.Chu(이용수 450만 건)'였다. 이 곡은 뮤직비디오 전체 순위에서도 1위에 올랐다. 에이핑크는 후속곡 'LUV(9위)'도 TOP10에 랭크 시키며 '뮤직비디오 여제'의 자리에 올랐다.

2위는 걸스데이의 '달링(Darling)'이었다. 이들 역시 '썸씽(Something)'을 상위권에 올리는 활약을 보이며 대세 걸그룹으로 꼽혔다. 씨스타 역시 '터치 마이 바디(Touch My Body)'와 '아이 스웨어(I Swear)' 두 곡을 TOP10에 올렸다. 그 뒤를 '까탈레나(오렌지캬라멜)', '행복(레드벨벳)', 'Red Light(f(x))', 'Mr. Mr.(소녀시대)'가 이었다.

한편 올레tv 관계자는 "거실에서 대형 화면을 통해 음악과 공연 영상을 감상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의 볼거리 증대를 위해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 콘텐츠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사진 서비스 이용하고 셀카봉 받자!" LG유플러스의 사진 전문 서비스 '아이모리'가 10주년을 맞아 이용자를 대상으로 셀카봉, 미러리스 카메라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제공

LGU+·노키아, '5G 네트워크' 협력

LG유플러스는 노키아와 5세대(5G) 네트워크 신기술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의 이번 MOU 체결은 5G 시대에 다양한 LTE 기반 혁신 서비스, 초고화질(UHD) 콘텐츠 등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가상화 기반 네트워크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전반을 선도하기 위함이다.

LG유플러스와 노키아는 양사의 ICT를 기반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신규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MOU 체결로 양사는 LTE-A와 5G 네트워크 기술 공동 연구, LTE에서 5G로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진화 방안 연구 등 차세대 5G 기술 공동 개발에 함께 나선다.

김선태 LG유플러스 SD본부장은 "노키아와 5G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 LTE 서비스를 넘어서는 5G 네트워크 핵심 기술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고객의 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여유 있는 생활방식을 만들어가는 '뉴 라이프 크리에이터(The New Life Creator)'로서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SK텔레콤, 멤버십 혜택 대폭 강화

가족 결합·VIP 고객에 무한멤버십 제공

SK텔레콤은 멤버십 고객 할인한도 상향과 제휴처 대폭 확대, 특별 프로모션 등 멤버십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SK텔레콤은 이날부터 고객 등급별 멤버십 할인한도를 상향한다. VIP 고객에게는 할인한도 제한 없이 멤버십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무한멤버십'이 제공된다. 올해 말까지는 가족 결합 고객도 무한멤버십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올해 무한멤버십 대상 고객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또 기존에 7만·5만·3만점의 할인한도를 받았던 골드, 실버, 일반 고객은 할인한도가 각각 10만·7만·5만점으로 상향된다.

멤버십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휴처도 대폭 늘어난다. SK텔레콤은 24일부터 새롭게 파리바게뜨,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미니스톱 등 제휴처를 순차적으로 확대, 총 90여개로 늘린다고 설명했다. T멤버십 고객은 파리바게뜨 1000원당 50~150원, 아웃백 5~15%, 미니스톱 5~15%, 불고기브라더스 15~20%, 할리스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멤버십 카드 이용 고객이라면 다양한 제휴처에서 추가 할인 혜택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웃백의 경우 모바일 카드를 이용하면 15%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실물 카드를 사용하면 5% 할인된다.

T멤버십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멤버십 카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고객의 멤버십 등급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맞춤형 혜택·이벤트 안내 등 부가 기능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한편 SK텔레콤은 고객 할인한도 상향·제휴처 확대를 기념해 24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찾아가자 T멤버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T멤버십 고객들은 프로모션 기간 동안 아웃백, 불고기브라더스, 미니스톱, 할리스 등 인기 제휴사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는 파리바게뜨에서 멤버십 고객 대상 매일 선착순 1만명에게 식빵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T멤버십 고객 전용 온라인 쇼핑몰 '초콜릿' 내 '무한 핫딜'에서는 인기상품을 최고 9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첫 주에는 워커힐 'Clock 16' 2인 식사권을 90% 할인된 2만원에 판매한다. /이재영기자

신세계, 올해 3조3500억 투자

외국 자본 적극 유치

신세계가 올해 사상 최대 투자 규모인 3조3500억원을 쏟는다. 특히 복합 쇼핑몰 등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신세계그룹은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2015 그룹 임원 워크숍을 열고 올해 전체 투자 규모를 3조35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투자 규모는 지난해 보다 50% 늘어난 수준으로 미래 준비와 '비전 2023'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고 그룹 측은 전했다.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등을 확대해 2023년까지 매출 88조원, 투자 31조4000억원, 고용 17만 명 등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지난해 초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교외형 복합쇼핑몰과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증축, 센텀시티 B 부지 추가 개발, 김해점 신축 등에 집중 투자한다.

또 전국 3~5개 이마트 신규점 진출, 매장 리뉴얼·증축, 모바일강화, 온라인몰 등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온라인 물류센터도 2020년까지 6개를 구축해 기존 온라인 쇼핑몰이 갖고 있는 물류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알리바바와 경쟁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의 경우에는 전사적으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올 상반기 중 기존 보다 2배 가까이 커진 5만3000㎡(1만6000평) 규모로 확장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편의점 위드미도 신규 경영주 수익 확대 등 경영 정상화와 내실 다지기에 집중한다.

신규 인력은 지난해(1만3500여 명)보다 1000여 명(8%) 늘린 1만4500여 명 가량을 채용할 계획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유통업계는 투자로 인한 고용 창출효과가 어느 산업보다 높은 편"이라며 "올해에도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빈폴액세서리, 새 얼굴에 '배우 유연석'

제일모직의 액세서리 브랜드 '빈폴액세서리'는 올해 새로 출시하는 남성 라인의 광고 모델로 배우 유연석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연석은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함께 출연했던 수지와 함께 빈폴액세서리 홍보 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제일모직 제공

강강술래 '인기상품 골라담기' 이벤트

홈페이지에 신청글 남기면 온수매트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떡갈비와 돈가스 등 인기 상품을 선택해 주문할 수 있는 '골라담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통등심돈까스(720g·2박스)와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2박스)로 구성된 세트는 3만7200원, 통등심돈까스(720g·2박스)와 칠칠한우떡갈비(360g)·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로 구성된 세트는 4만2000원에 판매한다.

또 대용량(800㎖·5봉·15인분)과 소용량(350㎖·5봉·10인분) 상품으로 구성된 보양식 한우사골곰탕박스는 55% 할인된 3만8800원에 선보인다.

이 외에 한우양념불고기(500g·2세트)와 한돈양념구이(500g)로 구성된 나라사랑세트는 약 43% 할인된 4만3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한편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두 개의 가열통으로 난방속도가 더욱 빨라진 삼원온스파의 최고급 온수매트 퀸(35만원 상당)를 증정한다. /김수정기자

"설 명절, 철통 지갑 열릴까?"

기자 수첩

김 수 정 <생활유통부 기자>

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통 업계가 바쁘다.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 온라인 유통, 편의점까지 선물 세트, 제수 용품 등 설 특수를 위해 일찌감치 준비하는 모습이다.

꽁꽁 언 내수에 각종 규제까지 겹치면서 유통업계는 수익을 감수하더라도 연중 할인을 감행하고 있다. 할인이라도 하지 않으면 좀처럼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기간은 명절이나 연말과 같이 기념일이 있는 달이다. 특히 명절은 유통가에서도 중요한 대목 중 하나다.

실제 지난해 설 명절이 끼었던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반짝 상승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동향 자료를 보면 명절 수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대형마트와 SSM의 1월 매출이 전월 보다 각각 16.2%, 17.7%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업계는 거의 한 달 전부터 준비 태세에 들어간다.

올해 역시 대형마트는 지난 주부터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를 시작했고 한 백화점은 대량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상품권 패키지 행사 기간을 작년 보다 5일 앞당겼다. 또 한 온라인 업체는 일주일 가량 설 관련 행사를 앞당겨 실시했다.

행사 기간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전략 상품도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

한 달짜리 반짝 특수이지만 불경기 속 그들의 전략과 노력이 통하기를 기대해 본다.

CJ오쇼핑, 중국 보험시장 공략

인도·태국·터키 등도 확대… 시그나그룹과 제휴

CJ오쇼핑은 글로벌 보험사인 시그나 그룹과 손잡고 이르면 연내에 해외 합자법인에 보험판매 사업 노하우를 수출한다고 19일 밝혔다.

CJ오쇼핑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홍콩 코즈웨이 베이에 있는 '시그나 인터내셔널 마켓(이하 시그나)' 본사에서 진출 국가 선정과 사업계획 협의를 골자로 하는 '해외 보험판매 사업 관련 업무제휴식'을 가졌다.

시그나측은 10여년간 축적된 CJ오쇼핑의 보험 전화판매 영업 노하우와 7개국 9개 지역에 구축된 글로벌 TV홈쇼핑 네트워크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J오쇼핑은 구체적인 진출국가 등이 선정되면 글로벌 상품소싱 전문 자회사인 CJ IMC를 통해 국내에서 축적된 고객관리(CRM), 콜센터 구축, IT시스템 개발 등의 노하우를 해외 홈쇼핑 합자법인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해외 합자법인은 현지 고객들에게 특화된 보험 상품을 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하게 된다.

CJ오쇼핑과 시그나는 우선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TV홈쇼핑 보험판매 사업은 초기 단계로 전해졌다.

CJ오쇼핑은 해외 합자법인을 통한 보험사업으로 2018년 약 1000억원대의 연간 해외취급고 추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CJ오쇼핑의 해외 보험시장 공략은 2004년 이후 국내 시장에서 10여년간 축적해 온 보험 판매 노하우와 인프라를 상품화해 해외로 수출하는 창조적 사업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CJ오쇼핑 글로벌사업본부 김윤구 부사장은 "현재 CJ오쇼핑이 진출해 있는 국가들 중 우선적으로 중국 진출을 타진한 뒤 인도, 태국, 터키 등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TV홈쇼핑 이외에도 보험사업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글로벌 사업을 다각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아웃도어 '마르살라' 컬러에 물들다

레드 와인의 적갈색… 의류·부츠 등 다양한 아이템 눈길

컬러 전문 기업 팬톤이 발표한 올해의 색상 '마르살라'(Marsala)가 아웃도어 업계를 물들이고 있다. 센터폴·노스페이스·코오롱스포츠 등 주요 브랜드들이 마르살라 컬러를 입힌 의류와 부츠 등을 선보이며 눈길을 끈다.

마르살라 컬러는 이탈리아 마르살라 마을의 와인 색상에서 유래했다. 숙성된 레드 와인의 깊은 적갈색을 닮았다.

트레킹 전문 아웃도어 센터폴 관계자는 "마르살라는 숙성된 깊은 와인 빛깔을 띄는 색상으로 풍요와 만족을 뜻하며 마음에 안정을 준다"면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과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이들의 여유로움을 잘 표현해 올 한해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센터폴은 마르살라 색상의 여성용 다운 재킷으로 '마르살라 아웃도어 룩'을 제안했다. 다운 재킷 전체에 마르살라 컬러를 적용하고, 다운 하단과 주머니 등에 데님라이크 소재의 배색 원단을 사용해 캐주얼한 느낌을 강조했다.

코오롱스포츠는 캐주얼한 디자인과 마르살라 컬러의 세련미를 강조한 후드 집업 셔츠를 내놨다.

마르살라 컬러의 세련된 느낌과 앞판의 퀼팅 처리로 디자인 포인트를 준 남성용 셔츠로 면 소재와 기모를 써 보온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네파 역시 마르살라 컬러의 슬림 핏 롱 다운 재킷 '헤라' 구스 다운으로 여심 공략에 나섰다.

허벅지를 덮는 긴 기장과 라인을 살린 슬림한 패턴이 돋보이며, 허리를 조여주는 벨트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했다. 또 은은한 광택감의 립 소재와 무광택 소재를 혼용한 외관으로 세련미를 더했다.

노스페이스는 마르살라 컬러의 방한 부츠 '부티'로 올해 아웃도어 패션피플을 공략한다.

부티는 최고급 거위털 충전재를 사용해 보온성을 극대화했으며, 패딩재킷을 연상시키는 볼륨감 있는 디자인에 풍요로운 느낌의 마르살라 컬러가 더해진 하이컷 다운 부츠다.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활동성이 높다.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아웃도어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스키니진·레깅스 등과 착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행에 민감한 패션·아웃도어 업계가 다양한 제품에 마르살라 컬러를 적용하며 올해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유통업계 올 키워드는 '건강'

일화 '예비채 센터'·롯데백 '건강 수면숍' 등 오픈

새해 유통업계에 '건강' 바람이 불고 있다.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트렌드에 발맞춰 기업들이 다양한 건강 테마숍을 잇따라 오픈하고 있다.

일화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아 건강수명 연장을 도와줄 신개념 건강브랜드 '예비채'를 론칭, 건강관리 전문 매장인 예비채 테라피센터를 열었다.

이곳에서는 '예방하고 비우고 채우자'라는 콘셉트로,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테라피스트들이 고객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올바른 생활습관·식습관·운동습관 설계를 돕는다.

롯데백화점은 업계 최초로 '건강 수면숍'을 서울 소공동 본점에 오픈했다.

이 매장에서는 '로프티' '파라디스' '슬립앤슬립' 등 총 20여 개의 침구·수면 관련 브랜드의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고객의 수면 스타일을 분석해 개개인의 수면 문제를 개선하는 수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면을 컨설팅해주는 필로우피터 판매직원은 시트 작성을 통해 고객의 수면타입을 분석한 뒤 체압 분석기와 경추 측정 도구를 통해 본인의 체형에 맞는 맞춤된 숙면침구와 아이템을 추천한다. 매장에 구비된 침대에서 추천 받은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다. 침구뿐 아니라 베개, 아로마, 소형가전, 티, 린넨 세제 등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이 다양하게 전시돼 있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도 건강시대에 발맞춘 업계 최초의 양곡 전문 매장 '보약밥상'을 선보였다.

견과·선식 등 건강에 좋은 양곡을 원하는 만큼 중량 단위로 구매할 수 있도록 '벌크' 진열한 숍인숍 개념의 매장이다. 국내산 친환경 잡곡과 견과는 물론 팬더콩·마카다미아·귀리·렌즈콩 등 약 100여 종의 다양한 양곡을 저렴하게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잡곡·견과·선식 등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전문매장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유산균 전문 브랜드 'ByO 유산균' 출범

올 매출 500억원 목표… CJ, 전문기업 설립

CJ제일제당이 19일 유산균 전문 브랜드 'ByO 유산균'를 선보이고 올해 관련 제품 매출 목표로 5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ByO 유산균'은 CJ제일제당의 '독자적' 바이오·식품 발효 기술력(By Origin), '동양적' 유산균 식품 김치를 통해 연구(By Oriental) 등의 뜻을 담고 있다.

이미 시장에 선보인 김치유산균 건강기능식품 '피부유산균 CJLP-133'의 명칭도 'ByO 피부유산균 CJLP133'으로 바뀐다.

박상면 CJ제일제당 건강기능식품 마케팅 총괄부장은 "지난 9년간 연구개발 끝에 기능성이 기대되는 100여 개의 후보 균을 확보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유산균 제품을 전략적으로 선보일 것"이라며 "올해 'ByO 유산균'을 매출 500억원대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CJ제일제당은 올해 안에 통합연구소 'CJ ONLYONE R&D센터'를 세워 프로바이오틱스(몸에 이로운 미생물) 유산균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통합연구소에서 생명과학, 생물자원, 제약 등 다양한 분야 연구를 진행하면 각 분야 노하우를 집약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지원기자

온라인 몰 '안티에이징 화장품' 불티

링클케어·아이크림 1년 중 1월 판매량 가장 많아

1월 들어 온라인 몰에서 안티에이징 관련 화장품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안티에이징 화장품 판매량이 지난달 같은 기간 보다 76% 뛰었다.

안티에이징 품목 중 링클케어 판매량은 65% 급증했으며 아이크림은 53% 판매가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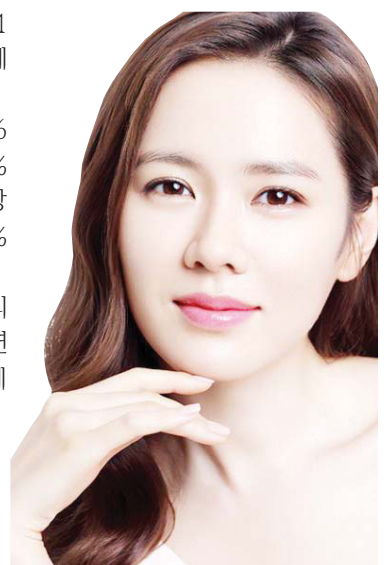
특히 30대 여성의 탄력·링클 상품 판매가 같은 기간 75% 증가하며 새해 안티에이징 판매량을 이끈 것으로 조사됐다.

두피 케어 상품 판매량도 47% 증가해 얼굴에만 집중되지 않고 헤어 상품으로 안티에이징 인기가 확대되는 추세다.

한편 연중 판매량을 비교해도 1월 안티에이징 화장품 판매가 눈에 띄게 많았다.

1년 간 판매 비중을 보면 평소 6~8%였던 판매량이 1월 들어 16%까지 뛰었다. 특히 판매량이 가장 적었던 2월(6%)과 비교하면 159%나 판매량이 높다.

아이스타일24 화장품 카테고리 담당 김혜란 MD는 "매년 1월이면 더 젊어 보이고 싶은 심리 때문에 안티에이징 관련 뷰티 제품을 찾는 회원들이 많다"며 "특히 겨울은 바람, 실내 난방 등으로 피부 탄력이 저하되는 시기인 만큼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꾸준히 바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이화의료원, 제2부속병원 건축 개시 기념 예배

/이화여대 의료원 제공

8월 기공식 후 2018년 상반기 준공 예정

이화여대 의료원(원장 이순남)이 최근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제2부속병원과 의과대학 건축 개시 기념 예배를 열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2부속병원과 의과대학 신축은 이화여대 의료원의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며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명품 병원을 건립해 국내외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부속병원과 의과대학의 공식 기공식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오는 8월에 열릴 예정이다. 건물은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이달 예배에는 윤후정 이화여대 명예총장과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이순남 이화여대 의료원 원장 등을 비롯한 교직원과 기부자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이강진 이대목동병원 원목의 예배 인도로 건축 개시를 축하했으며 이 원장의 기념사와 최 총장의 축사 등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제2부속병원과 의과대학 신축 경과를 보고받았으며 예배가 끝난 후에는 병원과 의대가 신축될 부지를 둘러봤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경의·중앙선 타고 인천공항 간다!

공덕역에서 인천공항철도 환승 가능

경의선 공덕~용산 구간이 지난해 말 개통되면서 지하철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경의선과 중앙선이 하나의 노선처럼 운행되면서 공덕역에서 인천공항철도로 한 번만 갈아타면 교통체증 걱정 없이 더 빠르고 저렴하게 공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옥수와 왕십리, 청량리 등 중앙선 노선 주민들은 인천공항철도를 탈 수 있는 공덕역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게 됐으며 소요시간도 평균 16분 이상 단축됐다. 게다가 인천공항철도는 수도권 전철과 달리 역과 역 사이의 간격이 평균 5.3㎞로 길고 열차 속도가 빨라 공항 접근이 편리하다.

아울러 코레일공항철도에 따르면 경의·중앙선과 환승되는 인천공항철도 공덕역 이용객은 공덕~용산 구간 개통 이전보다 3.2% 증가했다. 더욱이 코레일공항철도는 이번 개통으로 인천공항철도를 연계해 공항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철도 공덕역에서 인천공항까지는 53분 정도 소요된다.

/황재용기자

경의·중앙선 승객이 공항을 갈 때 이용하는 환승역 중 하나인 인천공항철도 공덕역.

/코레일공항철도 제공

빠지지 않는 뱃살 어떻게 할까?

유산소·근력 운동 병행, 생활습관도 개선해야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뱃살이다. 특히 직장인들은 평소 외식을 자주 하고 술자리도 많다.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적어 복부비만이 되기 쉽다.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우선 올바른 다이어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단지 몸무게를 많이 줄였다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근육과 지방이 적절한 비율을 이루는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드는 것이 다이어트의 핵심이다.

또 복부비만은 과식과 폭식, 고열량의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과 운동 부족, 음주 등이 주원인이다. 아울러 스트레스나 과로, 수면 부족 등도 뱃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면 식습관은 물론 생활습관도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부비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굶거나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 식이조절과 운동을 병행해 장기간 지속해야 한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만 고집하면 체내 지방은 물론 근육도 함께 빠지면서 어느 정도 체중이 줄다가 정체기가 올 수 있다. 게다가 근력 운동은 감소된 기초대사량을 상승시켜 살이 찌지 않는 체형으로 몸을 만드는 역할도 한다.

만약 꾸준한 관리에도 복부둘레가 줄지 않으면 지방흡입도 고려할 수 있다. 지방흡입은 지방세포의 양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보다 쉽게 몸매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지방흡입을 할 때는 전체적인 체형의 균형을 생각해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재상 바노바기성형외과 원장은 "다이어트를 할 때 잘 빠지지 않는 부위를 빼겠다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고 굶으면 오히려 근육이나 관절만 상할 수 있으며 요요현상이 찾아올 수도 있다. 특히 뱃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과 식이조절을 병행하면서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속도로 체중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추울 때 마시는 술, 몸에는 독!

음주 저체온증 유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울에 술을 마시면 몸이 풀리는 것 같고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알코올로 인해 혈액이 내부 기관에서 피부 표면으로 몰려 피부가 뜨거워지는 등 체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지만 결국 이 열은 피부를 통해 다시 발산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지는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겨울철 저체온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음주다. 36.5도로 체온을 유지시키는 시상 하부와 체온 조절 중추신경계가 알코올 흡수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음주 후 맞는 겨울의 찬 공기 역시 악영향을 미친다.

또 음주 중 지나치게 몸을 떨거나 피부가 차고 창백해지면 저체온증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갑자기 피로해지는 것도 저체온증의 증상 중 하나다. 하지만 저체온증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 증상만으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고 음주 중에는 이를 판단하기가 더욱 어렵다.

저체온증이 나타나면 우선 더 이상 중심 체온을 잃지 않도록 마른 담요나 이불 등으로 몸을 감싸는 것이 좋다. 담요로 덮어주면 시간당 0.5도에서 2도 정도 중심 체온이 올라간다. 아울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용준 다사랑중앙병원 내과 원장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저체온증 증상이 발생하면 이것이 저체온증 때문인지 술에 취해서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또 겨울에는 신체 기능이 더욱 떨어져 과음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마곡지구 '홈런' 예고… 제2 판교될까?

대기업 입주 러시, 자족기능 갖춘 주거단지로 각광

서울 서남권 자족도시로 조성 중인 마곡지구가 새해 첫 달부터 뜨겁다. 이미 분양한 아파트에 1억~2억원의 웃돈이 붙었다. 또 최근 문을 연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모델하우스 앞으로 방문객 줄이 400m 이상 이어지는 등 또 한 번의 흥행이 예고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16일 개관한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견본주택에 사흘간 무려 3만8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그간 여러 현장을 봐왔던 분양 관계자들조차 이렇게 많은 인파는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다.

마곡지구 처음이자 유일한 민간분양 아파트라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히지만 마곡지구 자체의 개발 호재가 많은 수요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곡지구는 강서구 마곡동·가양동 일원 366만5722㎡ 부지 위에 약 1만2015세대를 공급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다. 1지구에는 106만6132㎡의 주거단지가, 2지구에는 190만2671㎡의 산업업무단지가, 3지구에는 69만6919㎡의 수변복합단지가 조성된다.

비슷한 시기에 공급 중인 위례신도시와 곧잘 비교되곤 하지만 자족기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2기신도시 중 대표적인 자족도시인 판교신도시의 뒤를 이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에는 넥슨코리아·네이버·안랩·카카오 등 유명 IT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900여개의 기업에서 6만명이 일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올해 완공을 마치면 총 8만여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곡지구에는 LG사이언스파크, 코오롱컨소시엄, 롯데컨소시엄 등 대기업을 포함해 약 57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전체 규모는 판교(892만4631㎡) 절반에 못 미치지만 산업업무단지는 3배 이상인 점이 특징이다. 종사자 수 또한 2배 수준인 16만5000여명으로 추정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대기업이 입주하는 자족도시로 조성되기 때문에 실거주는 물론, 투자가치 측면에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며 "강남권 수요인 판교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제2의 판교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견본주택 내부.

다만 서쪽으로 쏠려 있는 입지와 공항소음 등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다.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등 교통망은 잘 구축돼 있는 편이지만 경부라인으로의 접근은 쉽지 않다. 또 김포공항과 가깝다 보니 항공기 소음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현지 중개사들의 전언이다.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는 "주거지구와 업무지구가 분리돼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교통도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공기 소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김포공항 운항 편수가 많지 않아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김영민 특허청장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국제회의실에서 건설분야 신기술·특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특허청, 건설신기술 협력

특허심사 2→1년으로

앞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특허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 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신기술·연구개발(R&D)과 특허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 건설기술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건설 신기술과 특허를 연계 심사해 기존 2년이던 심사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해외 특허 출원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해외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특허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허의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해 우수한 특허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사전적격심사(PQ)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했다. 건설 분야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지식재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양 기관 간 협력은 중동·동남아 외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해외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관련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특허청장도 "특허청은 산업별 특허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분야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이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받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 올해 초부터 MOU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선옥기자

2월 전국 1만6000여 가구 집들이

전셋집 구하기, 서울 '먹구름'·경기 '숨통'

오는 2월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의 감소폭이 커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는 2월 중순부터 전세난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전국 입주물량을 1만6168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 4773가구, 지방 1만1395가구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 9% 가량 줄어든 수치로 지난 3년간 2월 평균 입주물량(1만7626가구)보다도 적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해서는 30%가량 줄었다.

서울은 동대문구 용두롯데캐슬리치(용두4구역) 311가구, 신도림 IPARK(민간임대) 189가구 총 500가구만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오는 용두롯데캐슬리치는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과 1·2호선 환승역인 신설동역이 가까워 교통이 용이하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용면적 84㎡ 매매는 5억3000만원에서 5억8000만원, 전세는 4억원에서 4억3000만원 수준이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4273가구로 입주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화성동탄2신도시 2082가구, 수원호매실지구 A-4블록 1428가구(임대)와 하남미사보금자리지구 A11블록 763가구 등 신도시·택지지구의 물량이 풍성하다.

지방은 1만1395가구가 집들이에 들어간다. 세종시가 3248가구로 전체의 28.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전북에서는 군산미장IPARK 1078가구 등 총 2322가구가 집들이를 준비하고 울산에서는 경동우신알프스타운 1540가구가 입주예정이다.

이 외 ▲경북(1382가구) ▲전남(1009가구) ▲경남(480가구) ▲대구(479가구) ▲충남(473가구) ▲대전(356가구) ▲광주(106가구) 순이다.

이승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전셋집이 필요한 서울 이주수요자의 경우 최대한 많이 발품을 팔아 먼저 선점해야 한다"며 "3월에도 500가구 정도로 2월과 비슷하겠지만 4월에는 공덕자이, 마포한강푸르지오, 내곡지구 등 입주물량이 약 3600가구로 반짝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학철기자 kimc0604@

현대엔지니어링 몸집 늘린다

올해 수주 11조, 매출 7조원 설정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수주 11조원, 매출 7조원을 경영목표로 설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주 목표는 지난해 실적 11조8000억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매출은 작년 실적 6조3500억원보다 6500억원가량 높게 잡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현대엠코와 합병한 후 '톱 10' 건설사 진입에 성공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에서 초대형 공사를 잇달아 따내며 당초 목표 수주액보다 2조원 이상 초과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올해도 공격적인 수주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유가 하락 등에 따른 변수가 많아 목표는 다소 보수적으로 수립했다.

올 한해 경영방침은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역량과 기술경쟁력 강화'로 정했다. 이를 위한 4가지 전략과제로 ▲사업수행 역량 강화 ▲글로벌 시장 개척 ▲미래성장동력 사업 추진 ▲글로벌 기업문화 구축을 제시했다.

올해 현대엔지니어링은 우즈베키스탄 칸딤 가스전 개발, 알제리 지젤·비스크라 발전소 등 대형 공사들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업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중동 산유국의 발주물량 감소에 대비,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10대 미래성장동력 사업으로 선정한 가스액화처리와 민자발전(IPP) 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국내 아파트 공급 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마곡지구 '힐스테이트 마스터'를 시작으로 용인 기흥·충남 서산·세종시 등에서 지난해보다 4000가구 늘어난 1만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학철기자

"성장 가능케 한 것은 절제와 노력"

19일 오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영화 '워터 디바이너' 내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감독 겸 배우 러셀 크로우. /손진영기자 son@

러셀 크로우 '워터 디바이너'로 첫 내한

"내가 작품을 선택한 것 아닌 작품이 나를 선택해"
리들리 스콧·톰 후퍼 등 명감독과의 작업 큰 도움
차기 연출작 결정 "언젠가는 한국서도 촬영 희망"

"젊은 시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드니의 한 공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쌓인 솔잎을 치우고 나의 소원을 쓴 뒤 다시 솔잎을 덮고는 했죠. 의미없어 보이는 일 같지만 그때 저는 호주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활동하는 배우는 나밖에 없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절제와 노력이었습니다."

러셀 크로우는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다. 호주 출신인 그는 연극 무대를 거쳐 1990년 '크로싱'으로 영화로 데뷔해 '글래디에이터' '뷰티풀 마인드' '레미제라블' 등 블록버스터급 규모의 영화에서 명연기를 펼치며 강한 존재감을 남겨왔다. 자신이 연출과 주연을 도맡은 영화 '워터 디바이너' 홍보를 위해 한국을 첫 방문했다. 그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의 연기 인생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오는 28일 개봉하는 '워터 디바이너'는 1차 세계대전의 참혹했던 전투로 실종된 세 아들을 찾기 위해 머나먼 땅 터키까지 홀로 떠나온 아버지 코너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많은 청년들의 죽음으로 호주 역사에서 가슴 아픈 사건으로 남은 갈리폴리 전투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러셀 크로우는 '워터 디바이너'의 감독과 주연을 모두 맡은 것에 대해 "내가 이 작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이 나를 선택했다"고 표현했다. 작품 선정에 있어서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우선시 여긴다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닭살 돋을 정도의 감동"이다. 연기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생겨난 감독에 대한 욕구는 '워터 디바이너'의 각본이 지닌 감동과 맞물리면서 그로 하여금 연출을 결심하게 만들었다.

리들리 스콧을 비롯해 론 하워드, 톰 후퍼, 대런 아로노프스키 등 할리우드 명감독들과 함께 작업해온 러셀 크로우는 이들 감독과의 작업이 첫 연출작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조언을 해준 것은 감독 겸 배우인 벤 스틸러와 절친한 호러영화 전문 감독 일라이 로스였다.

"벤 스틸러는 주연도 맡은 만큼 연기에 더 신경쓰라고 조언해줬습니다. 감독으로 촬영을 하다 보면 정작 내 연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라이 로스의 호러영화는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저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는 34년의 연기 경력, 그리고 영화인으로서의 25년 경력보다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작품에 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이기도 한 러셀 크로우는 이번 영화를 통해 전쟁 속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진한 유대감을 표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많은 젊은이들을 잃어야 했다. 한국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와 비슷한 상실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상실을 다뤘다는 점에서 한국 관객들도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아버지로서는 아이들이 모든 상황에 필요로 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며 가정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 동안 함께 작업해온 수많은 감독들 중에서는 리들리 스콧 감독을 가장 "지적이고 창의적으로 잘 맞는" 감독으로 꼽았다. 전날에도 리들리 스콧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그는 "리들리 스콧의 제작사로부터 감독 제안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거절했다"고 밝혔다.

차기 연출작은 베트남전 당시 어선을 타고 호주까지 오게 된 피란민의 이야기를 그린 '해피 레퓨지'다. 러셀 크로우는 "언젠가는 한국에서 영화 촬영도 고려해보겠다"며 한국에 대한 관심도 빠트리지 않았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star bag

'완전체' SG워너비 앨범 발매

그룹 **SG워너비**(김용준·이석훈·김진호)가 CJ E&M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올 상반기 새 앨범을 발매한다.

4년 만에 완전체 활동이라 팬의 관심이 높다. 2004년 '타임리스'로 데뷔한 SG 워너비는 '살다가' '죄와벌' '라라라' 등 히트 곡을 남겼다.

김유정·손호준 '조이' 출연

배우 **성동일·김유정·손호준**이 영화 '조이'(가제)에 출연한다.

살인 사건 10년 뒤 사건담당 형사(성동일)와 그의 딸(김유정) 앞에 의문의 남자(손호준)가 나타나면서 10년 전 비밀이 드러나는 서스펜스 드라마 영화다. 1월 말 크랭크인 예정이다.

주연, 송승헌과 '한솥밥'

그룹 애프터스쿨 전 멤버 **주연**이 송승헌·김민정·채정안 등이 소속된 더좋은이엔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주연은 최근 전 소속사 플레디스와 계약 만료를 앞두고 그룹 탈퇴 소식을 전했다. 지난해 MBC 드라마 '호텔킹' '개과천선'에 출연하며 연기 경력을 쌓았다.

정혜성 '블러드'로 입지 굳힌다

배우 **정혜성**이 KBS2 새 월화극 '블러드'에 출연한다. 그가 맡은 최수은은 태민암병원 혈액종양내과 펠로우다.

전문의 유리타(구혜선)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다. MBC '오만과 편견' 종영 후 바로 차기 작을 선택하며 배우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각오다. '힐러' 후속 작으로 내달 중 방송.

19금 이야기까지…에디킴 세졌다

포크송 귀재 미니 2집 '싱싱싱' 발표
슬로우잼·블루그래스 등 장르 다양

싱어송라이터 에디킴(본명 김정환·사진)이 새로운 노래로 돌아왔다.

지난해 미니 1집 '너 사용법'으로 데뷔한 그는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 선율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성팬들을 사로잡았다. 21일 미니 2집 '싱싱싱(Sing Sing Sing)'을 발표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앨범에서 포크는 물론 슬로우잼, 블루그래스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했다. 가사도 달라졌다. 1집이 세레나데 모음집에 가까웠다면 이번 앨범에는 음악에 대한 자신의 마음가짐, 농도 짙은 사랑이야기, 나쁜 여자에게 상처받은 남자의 마음 등 여러 이야기를 담았다.

'싱싱싱'에 수록된 6곡의 장르는 제각각이다. 그는 "1번 트랙 '싱싱싱'은 블루그래스다. 컨트리의 한 장르인데 벤조, 만돌린 등의 악기가 쓰인다. 미국 버클리 음대 재학시절 친구가 벤조 플레이어였는데 그 친구와 버스킹(거리공연)할 때를 떠올리며 편곡했다"고 밝혔다.

'샤워걸'은 끈적한 멜로디의 슬로우잼이다. '19금' 노래라고 소개한 에디킴은 "처음엔 영어 가사로 된 노래였다. 멜로디는 진지하지만 가사는 웃겼다. 거리에서 만난 여자를 따라간다는 코믹한 내용이었는데, 한국어 가사로 새로 쓰면서 내용이 아예 달라졌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선공개된 수록곡 '어폴로자이즈(Apologize)'는 에디킴이 군대 있을 때 만든 노래다. 그는 "최악의 악녀를 만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실제로 그런 나쁜 여자는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어설프게 나쁜 여자는 재미가 없으니까 상상해서 가사를 썼다"고 설명했다.

타이틀곡 '마이 러브(My Love)'는 '너 사용법' '밀당의 고수' 등에서 느낄 수 있었던 에디킴의 매력이 잘 나타나 있는 포크송이다. 최근 포크 음악을 하는 젊은 가수들이 늘어난 것에 대해 그는 "포크 음악이 젊은이들 사이에선 비주류에 가까웠는데 요즘엔 많이 달라졌다. 오디션 프로그램 덕분인 듯 하다"며 "이런 시기에 활동할 수 있는 것도 행운"이라고 말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온라인 핫 이슈

클라라 vs 폴라리스 문자 공개 '진흙탕'

배우 클라라(사진)와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의 계약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

19일 한 매체는 클라라와 폴라리스 이 모 회장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폴라리스 측은 "고의로 공개한 게 아니다. 내용이 어떻게 유출된 건지 확인 중"이라며 "전문을 다 보지 못하였으나 공개된 내용이 진짜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클라라는 "공개된 메시지는 편집된 것"이라며 "현재 홍콩에 체류 중이다. 기사를 통해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걸 확인했고 변호사와 정리해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계약 분쟁은 지난 14일 처음 알려졌다. 당시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주목 받았지만 공개된 메시지 내용 전체를 감안할 때 "지나친 해석이었다"는 여론이 상당해졌다. 반박을 거듭하고 있는 클라라와 소속사 간의 분쟁은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

이병헌, 아빠 된다 이민정 임신 27주

배우 이병헌·이민정(사진) 부부가 올 4월 부모가 된다.

19일 이민정의 소속사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민정은 임신 27주"라며 "한 가정의 아내로 아이를 갖게 된 일은 축복할 일이지만 최근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이를 알리는 것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2013년 8월 결혼한 이병헌·이민정은 4월 예정일에 맞춰 당분간 국내에서 출산을 준비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유아 낫 유

당신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요?

루게릭 병 환자·간병인의 감동 드라마

케이트(힐러리 스웽크)의 삶은 완벽했다. 피아니스트로 쌓아온 성공적인 커리어,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남편,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할 근사한 집까지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포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케이트는 알지 못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루게릭병이 그 포장을 벗겨내기 전까지 말이다.

케이트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면 벡(에미 로썸)은 부족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다.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꿈이 있음에도 벡은 선뜻 그 꿈에 도전하지 못한 채 방황하며 매일을 보내고 있다.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고 있던 케이트와 벡은 환자와 간병인으로 만나면서 자신들이 발목을 옭아매고 있는 세상의 손길을 뿌리치고 진짜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영화 '유아 낫 유'에는 익숙한 설정들이 가득하다. 불치병에 걸린 주인공, 그런 주인공과 전혀 상반된 처지에 놓인 또 다른 인물, 그리고 이들의 교감을 통해 감동과 교훈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습들이다. 그럼에도 '유아 낫 유'는 현대인이라면 공감할 삶의 한 모습을 파고듦으로써 관객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인다.

벡이 싱어송라이터의 꿈을 안고 있음을 알게 된 케이트는 오래 전 자신을 좋아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꺼낸다. 자신을 위해 만든 노래를 집 앞 현관에서 부르며 자신을 물끄러미 쳐다본 추억 속 남자를 떠올리던 케이트는 그 남자야말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줬다고 말한다. 병마와 싸우면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케이트, 그리고 그런 케이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들의 대비는 매일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만을 고민하는 현대인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익숙한 기승전결의 형식을 지닌 영화는 두 배우의 열연으로 생기를 얻는다. 힐러리 스웽크는 서서히 몸이 마비되는 루게릭병 환자 역을 아름답게 소화한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주로 활약했던 에미 로썸의 안정적인 감정 연기도 인상적이다. "너는 네가 아니야." 영화 '유아 낫 유'의 제목은 두 주인공의 삶을 표현하는 말인 동시에 관객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15세 이상 관람가. 1월 22일 개봉.

유승호·고아라 '조선 마술사' 랑데부

곽도원·조윤희 등도 영화 캐스팅

유승호

고아라

영화 '조선 마술사'(감독 김대승)이 유승호·고아라·곽도원·조윤희 등 주요 캐스팅을 확정했다.

'조선마술사'는 위험한 사랑에 빠진 조선 최고의 마술사가 거대한 음모에 휩싸여 운명을 거스르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이다.

유승호의 전역 후 첫 작품으로 화제가 됐다. 유승호는 조선시대 최고의 마술사 환희 역을 맡았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 '너희들은 포위됐다'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고아라는 환희를 만나 운명을 거스르려는 공주 청명 역으로 함께 한다.

곽도원은 당대의 마술사로 환희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귀몰 역을 맡았으며 조윤희는 환희와 함께 자라온 누이이자 침술, 언변, 미모까지 겸비한 눈먼 기생 보음 역으로 출연한다. 올해 초 크랭크인.

/장병호기자

주검으로 돌아온 딸,
엄마의 복수가 시작됐다!

매주 {월~목} 오전 9시40분 tvN

360도 돌아 제자리? "색다를 것"

'코믹' 황정음·'섹시' 이하늬·'상큼' 남보라…원래 이미지로

이하늬
황정음

배우 황정음·이하늬·남보라가 원래 이미지로 돌아왔다. 세 배우는 전작의 연기 변신으로 색다른 매력을 보여줬다. '코믹·섹시·상큼'이라는 기존 이미지로 또 변신해 시청자와 만나고 있다.

황정음은 지난해 SBS '끝없는 사랑'에서 정치 영웅 서인애를 연기했다. 눈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캐릭터로 분해 진지한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MBC 수목극 '킬미, 힐미'를 통해선 코믹 연기로 웃게 만든다. 대표작 '지붕 뚫고 하이킥'(2009) 캐릭터와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황정음은 "이제는 '하이킥'만의 황정음이 아니다"며 "내공이라고 말하기 부끄럽지만 예전보다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차별화된 연기를 각오했다.

이하늬는 19일 첫 방송된 MBC 월화극 '빛나거나 미치거나'에서 고혹적인 황보여원로 분했다. 독을 다루는데 일가견이 있어 아름다운 독초로 불린다. 전작 SBS '모던파머' 속 억척스러운 마을 이장과는 다른 냉철한 카리스마로 극에 긴장감을 줄 예정이다. 그동안 보여줬던 섹시한 이미지와 겹친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이하늬는 "비슷한 이미지를 많이 연기했었다"며 "근데 그때보다 눈이 더 깊어졌다. (역할을 소화할) 자세는 돼 있다"고 말했다.

남보라는 SBS 주말극 '내 마음 반짝반짝' 분위기 메이커로 활약 중이다. '진심 원조 통닭' 막내 딸 이순정으로 분한 그는 치킨집 사장을 꿈꾸는 열혈 여고생으로 변신했다. 전작 SBS '사랑만 할래'에서 상처 받은 미혼모 역을 맡아 매회 눈물을 흘렸다. 상큼한 매력이 돋보였던 남보라의 변신이 주목 받았다. 남보라는 "'사랑만 할래'로는 매회 울었다. 그러나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다"며 "이순정은 실제 내 성격과 비슷하다. 마지막 작품이라는 각오로 연기 중"이라고 출연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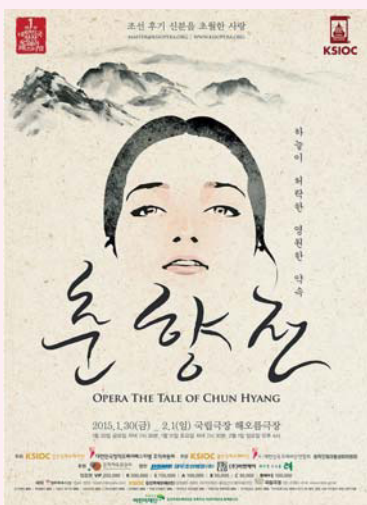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춘향이와 만난 카를로 팔레스키

창작 오페라 '춘향전' 30일~내달 1일 국립극장

국내 최초 창작오페라 현제명의 '춘향전'이 오는 30일부터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제 1회 대한민국 창작오페라 페스티벌 참가 단체로 선정된 김선국제오페라단이 함께 한다. 세계적인 지휘자 카를로 팔레스키가 지휘봉을 잡는다.

현제명의 '춘향전'은 악보가 온전히 보전되지 않아 공연될 때마다 각 단체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

김선국제오페라단표 현제명 '춘향전'은 카를로 팔레스키가 수정을 거듭하며 음악적 완성도를 높였다. 서양 음악과 한국 전통 음악의 특징이 어우러진 공연이 될 예정이다.

오페라 현제명의 '춘향전'은 유치진의 희극 춘향전을 토대로 제작됐다. 현제명이 작곡하고 이서구가 대본을 맡았다. 1950년 5월 국립극장에서 초연을 한 후 오랫동안 사랑 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창작오페라다. 내달 1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전효진기자

"다음엔 아이유와 듀엣하고파"

'홀로서기' 정용화 솔로 1집 '어느 멋진 날' 발표

밴드 씨엔블루의 정용화(사진)가 솔로 가수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정용화는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마리아칼라스홀에서 솔로 정규 1집 '어느 멋진 날' 음악감상회를 열고 자신의 음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번 앨범에 수록된 총 10곡의 노래는 모두 정용화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이미 70여곡의 자작곡을 발표하며 싱어송라이터로서 두각을 나타냈던 그는 "10곡 모두 내 자식같은 노래들"이라며 애정을 나타냈다.

또 씨엔블루 멤버들이 아닌 양동근·버벌진트·윤도현·임준걸·피터 말릭 등 국내외 아티스트들과 호흡을 맞추며 새로운 음악에 도전했다.

타이틀곡 '어느 멋진 날'은 이별 후 담담한 마음을 노래한 발라드곡이다. 그는 "억지로 바꾸려고 한 건 아니지만 씨엔블루 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우선 무대 위에서 악기를 들고있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와의 협업에 대해선 "혼자만의 방식으로 곡을 만들고 작업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는데 선배들과 작업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며 "임준걸, 피터 말린과 작업할 땐 글로벌 스타가 된 기분이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그는 또 "씨엔블루 멤버인 민혁·종현 등이 녹음실로 자주 찾아왔다"며 "민혁이가 '형 우리 앨범보다 더 열심히 한거 아니야?'라고 다그치자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다음 씨엔블루 앨범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다음 솔로 앨범에선 여자 가수와 호흡을 맞추고 싶다는 희망도 밝혔다. 그는 "듀엣곡을 만들어 둔 게 있다"며 "아이유, 에일리, 선우정아와 달콤한 노래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

노엘 갤러거 4월 내한공연

새 앨범 '체이싱…' 발매 기념

오아시스의 노엘 갤러거(사진)가 3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노엘 갤러거는 오는 4월 3~4일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시어터에서 두 번째 솔로 앨범 발매 기념 내한 공연을 개최한다.

그는 지난해 10월 새 싱글 '인 더 히트 오브 더 무브먼트(In the Heat of the Moment)'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는 3월 새 앨범 '체이싱 예스터데이(Chasing Yesterday)' 발표와 함께 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2년 노엘 갤러거의 첫 솔로 앨범 발표를 기념해 열린 내한공연은 전석 매진되며 큰 인기를 모았다. 이번 내한 공연의 티켓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예스24, 인터파크, 라이브네이션코리아 등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김지민기자

18일 호주 브리즈번의 퀸즐랜드 스포츠 & 애슬레틱 센터에서 회복훈련 중인 한국 축구 대표팀에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울리 슈틸리케 감독. /연합뉴스

슈틸리케호 "일단 휴식"

조별리그 3경기 '녹초'…22일 우즈베크와 8강 격돌

2015 호주 아시안컵에서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을 앞두고 있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휴식으로 토너먼트 준비를 시작했다.

대표팀을 이끄는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호주 멜버른 입성 첫날인 19일 훈련 일정을 잡지 않고 선수들에게 휴식을 줬다. 대한축구협회는 "선수들이 마음 놓고 쉬라고 감독이 자유시간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팀은 지난 17일 호주와의 2015 아시안컵 A조 3차전에서 평소보다 더 많이 뛴 탓에 경기 후 탈진하듯 그라운드에 누웠다. 박주호, 구자철(이상 마인츠)은 상대의 거친 플레이로 부상했다. 특히 공격진의 핵심요원인 구자철은 팔꿈치 인대 파열로 남은 경기에 더 출전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다수의 선수가 컨디션 난조와 부상을 하는 가운데 3연승을 달렸다. 이청용(볼턴)은 오만과의 1차전에서 정강이를 다쳐 대회를 마감하고 귀국했으며 손흥민(레버쿠젠), 구자철, 골키퍼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등은 몸살로 쿠웨이트와의 2차전에 결장했다. 주장 기성용(스완지시티)과 왼쪽 풀백 김진수(호펜하임)는 세 경기 연속으로 풀타임을 소화했다.

조별리그 고전으로 지친 슈틸리케호가 몸을 추스르고 새로 시작할 의지를 다잡을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오는 22일 멜버른 랙탱귤러 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과 8강전을 치른다. 슈틸리케호는 20일 컨디션을 조율하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다. 21일에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일전을 대비한 마지막 전술 담금질을 치르며 출전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우즈벡 감독 "한국 꺾을 수 있다"

2015 호주 아시안컵에서 한국의 8강 상대가 된 우즈베키스탄의 감독이 한국을 꺾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미르잘랄 카시모프 우즈베키스탄 감독은 18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3차전을 마친 뒤 아시아축구연맹(AFC)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한국을 물리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은 18일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3-1로 꺾고 B조 2위로 8강에 진출했다. A조 1위인 한국과 오는 22일 8강전에서 맞붙게 됐다.

우즈베키스탄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71위로 한국(69위)보다 두 계단 낮지만 중앙아시아의 복병으로 꼽힌다. 역대 상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8승2무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카시모프 감독은 우즈베키스탄 프로축구 리그의 분요드코르와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한국 선수들을 자주 상대했다. 또한 대표팀 주장인 세르베르 제파로프는 지난 시즌까지 K리그 클래식 성남FC에서 활약했다.

카시모프 감독은 "제파로프는 매우 경험이 많은 선수라 남은 경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장병호기자

2015 호주 아시안컵 8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맞붙게 된 한국 축구 대표팀이 18일 호주 브리즈번의 퀸즐랜드 스포츠 & 애슬레틱 센터에서 회복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시 통산 30번째 해트트릭

호날두 2골 득점 선두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가 리오넬 메시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승리를 맛봤다.

메시는 18일(현지시간) 스페인 라코루냐에서 열린 2014-2015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19라운드 데포르티보 라코루냐와의 원정 경기에서 혼자 세 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바르셀로나는 4-0으로 완승을 거뒀다.

메시는 이날 세 골을 넣어 시즌 19골을 기록해 득점 2위 자리를 지켰다. 또한 지난 11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에 이어 리그 두 경기에서 연속 골맛을 보며 최근 불거진 감독과의 불화설, 이적설 등을 잠재웠다. 해트트릭은 개인 통산 30번째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 헤타페를 상대로 3-0 승리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두 골, 가레스 베일이 한 골을 넣어 대승을 거뒀다.

올해 국제축구연맹(FIFA) 발롱도르 상을 받은 호날두는 시즌 28골로 득점 선두를 질주했다. 메시와는 9골 차이다.

/장병호기자

18일 스페인 라코루냐에서 열린 2014-2015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와 라코루냐의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가운데)가 골을 넣고 있다. /AP 뉴시스

'애제자' 강정호 위해 염경엽 한수 지도

스프링캠프 훈련 "피츠버그 주전경쟁 이기려면 수비부터"

넥센 히어로즈의 염경엽(사진) 감독이 애제자이자 광주일고 직계 후배인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수비 훈련을 직접 돕는다.

염 감독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프링캠프 훈련에서 "강정호의 컨디션이 올라오는 대로 글러브를 쥐고 2루 수비 요령을 가르치겠다"고 했다. 현역 시절 유격수와 2루수로 뛴 염 감독은 2루수로 뛰어본 일이 없는 강정호에게 왼쪽 발을 잘 쓰는 방법을 전수할 생각이다.

염 감독은 "유격수로 오랜 기간 뛴 강정호가 금세 요령을 터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츠버그와 '4+1'년간 계약한 강정호는 지난해 주전 유격수로 활약한 조디 머서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다음달 중순 막을 올리는 피츠버그의 스프링캠프에서 머서와 경쟁해야 한다. 감독 눈도장을 받으면 풀타임을 뛸 절호의 찬스를 잡지만, 반대로 우위를 보이지 못하면 내야 전 포지션 후보 선수로 겉돌 수밖에 없다.

염 감독은 "정호가 수비 기량을 인정받아 유격수 자리를 잡는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면서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로서 거두기 어려운 성적(지난해 홈런 40개·타점 117개)을 수확했기에 빅리그의 관심을 받은 것 아니냐"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강정호가 장기인 공격력을 맘껏 펼치려면 주전 2루수에 도전하는 것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피츠버그의 2루수 닐 워커는 지난해 타율 0.271, 홈런 23개를 쳤다.

결국 염 감독은 강정호가 타격보다 수비 실력을 앞세운 유격수 머서, 왼쪽 타석에서 강점을 보이는 워커 두 선수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수비부터 탄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민준기자 mjkim@

추위를 많이 탈 때 도움이 되는 음식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우리나라 여성들 중 70~80% 정도가 몸이 찬 냉체질에 속한다. 그래서 겨울철 추위를 견디기 힘들어한다. 특히 몸에 찬 기운이 많아지면 복통이 자주 발생하고 장이 예민해지게 된다. 찬 기운이 근육도 뻣뻣하게 만들어서 등이나 뒷목, 어깨가 굳어지면서 피로도 많이 쌓인다. 두통, 요통 등의 통증 발생이 잦아지는 것도 몸이 차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체온이 1℃ 내려가면 신진대사는 12%, 면역력은 30%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몸이 차가워지면서 혈액을 통해 온 몸으로 운반되어야 할 영양소와 산소, 면역물질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체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게 된다.

찬 기운을 몰아내는 데 좋은 본초로는 쑥이 있다. 손발이 차고 생리통이 있는 여성들이 가까이 하면 좋은 것 또한 쑥이다. 쑥을 뜨거운 물에 잘 우려낸 다음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면 몸에서 찬 기운을 내보낼 수 있고, 쑥의 향기를 내는 치네올 성분은 생리통을 가라앉혀준다. 쑥에 풍부한 엽록소·비타민·미네랄 성분들이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피로를 해소한다.

원기회복에 좋은 본초인 인삼도 몸에서 찬 기운을 몰아낸다. 더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지만 몸이 찬 소음인들이 복용하면 찬 기운을 몰아내고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몸의 말단 부위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좋다.

양념으로 많이 쓰는 마늘도 몸을 따뜻하게 한다. 몸이 차서 소화 기능까지 떨어진 소음인들에게 특히 좋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가 약한 사람들은 반드시 익혀서 먹는 것이 좋다. 마늘 20통을 껍질을 벗겨 얇게 저민 다음 물 1컵을 넣고 끓인 찜통에 쪄낸 후 식혀서 꿀에 재어두었다가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시면 효과적이다. 익힌 마늘은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력도 증진시킨다.

/김소형 한의사(bonchotherapy.com)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6	3		
		8	3	9			7	
	5							2
				3		7		
	7		9	8	5		4	
		4		6				
5							6	
	9			2	8	1		
		3	6				8	

					4	1		
					3		9	
	9		1			3	5	
5	4				2			
	3	7		6		9	2	
			7				3	4
	1	3			5		6	
	6		8					
		2	9					

스도쿠 정답

7	4	9	2	5	6	3	1	8
1	2	8	3	9	4	5	7	6
3	5	6	8	1	7	4	9	2
8	6	5	4	3	1	7	2	9
2	7	1	9	8	5	6	4	3
9	3	4	7	6	2	8	5	1
5	8	2	1	4	3	9	6	7
6	9	7	5	2	8	1	3	4
4	1	3	6	7	9	2	8	5

3	7	6	5	9	4	1	8	2
1	5	8	6	2	3	4	9	7
2	9	4	1	7	8	3	5	6
5	4	9	3	8	2	6	7	1
8	3	7	4	6	1	9	2	5
6	2	1	7	5	9	8	3	4
9	1	3	2	4	5	7	6	8
4	6	5	8	3	7	2	1	9
7	8	2	9	1	6	5	4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교사 직업 장애인, 결혼 늦어져 걱정
현직에 충실하면 올해 성혼도 가능

일도 2570 남자 80년 1월 13일 양력 0시 45분

Q 지난 번 유료로 상담을 드렸을 때 저에게 재성의 기운이 있어 약사, 공무원 등이 인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장애인이라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네요. 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가 있어 여성과의 만남이 쉽지 않고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결혼을 너무 늦게 하면, 하게 되더라도 힘들 것 같아요. 육아문제 등 혹시 결혼이 가능하다면 장애인이 좋은지 정상인이 좋은지 연상이 좋은지 연하가 좋은지 알려주세요.

A 귀하는 '바위를 뚫고 자라는 화초'와 같은 성정으로 언뜻 가냘프게 보이지만 속으로 대단히 날카롭고 끈질긴 기질을 품고 있습니다. 대체로 의리가 있으며 한번 결심하면 매진하는 성격이며 현재는 전신줄에 앉은 새가 두리번거리면서 이성과 재물을 찾는 형상인데 외견은 부드럽게 보이지만 내면에는 금기(金氣)를 띠어 권위적입니다.

남자에게 있어 사주용어로 재성(財星)은 여자와 재물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이 공망(空亡:빌공, 망할 망)을 맞아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15년 결혼운이 들어와 성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타인을 돕는데 부담을 안 느끼는 분이니 몸이 불편하더라도 남을 돕는 것에 기쁨을 느끼며, 공직이나 직장인이 천직이니 현직에 충실하고 희망을 가지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렵게 태어난 이유가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인간이 태어난 것은 수천 겁을 거쳐 내려오다가 복 받을 일이 있어서 부모의 몸을 빌어 태어난 것이므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감사(感謝)'보다 더 높은 것은 '봉사(奉事)'라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재물의 기부로 나눔을 베풀면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다해도 복받고 태어난 몸이니 살아있어 숨을 쉬고있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스스로 나약함에 빠지지 마시고 본인의 타고난 복을 믿고 감사하며 봉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운기도 있으니 결혼도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됩니다. 편두통을 앓기 쉽고 간, 비장이 약하며 치아도 부실해지기 쉬운데 몸에 큰 수술자국이 있으면 액땜을 한 셈이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사

■ 공정거래위원회
◇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재중
■ 애경그룹
◇승진 ▲AK켐텍 이호형 대표이사 사장 ▲AK켐텍 김선영 상무 ▲코스파 김원종 대표이사 전무 ▲코스파 박노현 상무보 ▲AK레저 정광호 대표이사 전무 ▲AK&MN BioFarm 이윤호 공동대표이사 상무 ▲애드미션 김유탁 대표이사 사장 ▲애드미션 전준열 상무보 ▲AKIS 김진기 대표이사 전무 ▲애경유화 김정곤 부사장 ▲애경유화 문상철 상무 ▲애경유화 이종화 상무보 ▲제주항공 박영철 상무 ▲AMPLUS자산개발 성영수 상무 ▲AMPLUS자산개발 이영수 상무 ▲마포애경타운 김동준 상무 ▲애경개발 이희경 상무보 ▲AK홀딩스 김재천 전무 ▲업무지원실 백차현 상무 ◇전보 ▲AK플라자 오승준 전무 ▲AK Vina 임호근 상무보
■ 미래에셋증권
◇ 팀장 전보 ▲ 기업RM1본부2팀 이민우 ▲ 연금전략팀 박신규 ▲ 전략트레이딩팀 김현준 ▲ WM채권팀 배제윤 ▲ RM지원팀 김종각 ▲ 해외전략팀 강문경 ◇ 지점장 전보 ▲ 구의지점 이전식 ▲ 구리지점 이영미
■ 암롭코리아
◇ 상무 영입 ▲ 조주연
■ 특허청
◇ 과장급 승진 ▲ 특허심판원 심판관 최승삼 ◇ 과장급 전보 ▲ 정보고객지원국 등록과장 신준호 ▲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2과장 정 익 ◇ 서기관 전보 ▲ 특허심판원 안준영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박현수 ▲ 특허심사1국 생활가전심사과 신현철 ▲ 특허심사1국 생활가전심사과 이백수 ▲ 특허심사3국 로봇자동화심사과 김동성 ▲ 특허심판원 허호신
■ 한국철도시설공단
◇ 1급 전보 ▲ 중국지사장 김용완 ▲ 충청본부 건설·기술처장 손병두
■ 한국인터넷진흥원
◇ 파견 ▲ 국제인터넷주소기구 서울사무소장 권현오
■ 한글과컴퓨터
◇ 승진 ▲ 전무이사 경영지원본부 변성준 ▲ 상무이사 연구개발본부 김만수 ▲ 이사 기획조정본부 양용범 ▲ 이사 영업본부 김대기 ▲ 이사 연구개발본부 박준석 ▲ 이사 연구개발본부 정재호
■ 서울대학교
▲ 간호대학 부학장 박연환
■ HMG퍼블리싱
▲ 포춘코리아본부 편집부 부장 김윤현

부고

▲ 김명환씨 별세, 김기천·은재씨 부친상, 이기호(휠라코리아 사장)씨 장인상, 남태숙씨 시부상 = 18일 오후 4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02)3410-6920
▲ 김학열씨 별세, 김창기(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충북도 사회복지협의회장)씨 부친상 = 18일 오후 5시,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30분. (042)583-4708
▲ 이경섭씨 별세, 이재남(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장학관)씨 부친상 = 18일, 광주첨단 보훈병원 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8시. (062)973-9164
▲ 임숙이씨 별세, 최명길(탤런트)씨 모친상, 김한길(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씨 빙모상 = 19일 오전 6시20분, 서울 신촌 연세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실 2호, 발인 21일 오전 8시.(02)2227-7580, (02)788-2163
▲ 장상호씨 별세, 장태섭(KB투자증권 주식영업팀 이사)씨 부친상 = 18일 오후, 순천향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4층 VIP실, 발인 20일 오후 12시 20분. (02)797-4444
▲ 황재숙씨 별세, 이영종(경기도 택시정책과장)씨 모친상 = 18일 오전 9시, 의정부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0일 오전 10시. (031)844-4040.

'땅콩 회항' 조현아 혐의 부인

어제 첫 공판 "소란 있었지만 처벌 받을 행위 없었다"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서 승객들과 사무장, 그리고 승무원과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또는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으면서도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셈이다.

아울러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인정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며 사실상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증거인멸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법정에 선 여 상무의 변호인 역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과정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철근 빼돌린 일당 구속 기소

대구·경북 등 9곳서 9억원 어치 가로채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9곳에서 현장소장 등이 철근 8억8000만원어치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아파트 등을 신축하면서 철근 자재를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철근 가공업체 대표 권모(55)씨와 시공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박모(43)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와 경북, 울산지역 8개 아파트와 대구지역 오피스텔 신축과정에서 1128톤의 철근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사나 감리업체의 적발을 피하려고 시공에 사용될 철근 중 일부를 철근 가공업체에서 미리 빼돌린 후 발주서와 송장에는 시공도면에 적힌 전체 철근 물량이 현장에 입고된 것처럼 꾸미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청사 안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또 이들은 시공도면상 여유 철근이나 공사 편의를 위한 가설용 철근 등을 주로 빼돌렸으며 공사 중간이나 종료 뒤 횡령한 철근 물량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배분했다.

한편 검찰은 9개 피해 건축물 가운데 빼돌려진 철근 물량이 많은 대구지역 한 아파트에 대해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구조안전 검토를 의뢰한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아동 폭력 이제 그만" 인천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19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는 인천지역 부모들의 학동학대 근절 촉구 집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CCTV 영상 미제공 어린이집 공개

앞으로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그 명단이 공개된다.

강신명(사진) 경찰청장은 19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없지만 점검단이 나갔는데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원아 폭행을 계기로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지난 15일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어린이집 4만3752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21%인 9081곳에 불과하지만 경찰은 아동학대 제보가 접수되거나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학대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은 사전에 제보가 없거나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미리 안내장을 배포해 제보를 받은 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 청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교수 채용 미끼 거액 챙긴 여약사회 부회장 실형

징역 3년… 사립대 재단이사인 것처럼 속여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교수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9일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73)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2년 1월 자신이 서울에 있는 3곳의 사립대 재단이사를 맡고 있어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딸을 교수로 채용해주겠다고 임모씨를 속였다. 이에 임씨는 정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4억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정씨는 자신이 언급한 사립대 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또 2013년 1월 검찰이 임씨가 돈을 송금한 차명계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정씨는 임씨에게 "돈을 보낸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겁을 준 뒤 검찰에 손을 쓰겠다는 명분으로 2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아울러 정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자신이 서울의 한 여대 재단이사를 맡고 있으며 자신이 추천하면 교수가 될 수 있다며 수억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립학교 재단이사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교수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송금받았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무마를 내세워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내연녀 살인미수범 징역 30년

내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피고인에게 역대 최고형인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게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로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가 이뤄졌을 때는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까지 감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한다.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10년 이상 선고한 전례를 찾기가 힘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간의 상상 범위를 넘는 극악한 범죄'라는 이유로 살인죄 이상의 책임을 물었다. 특히 피해자가 1명인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황재용기자